





범 내려온다

참여작가: 부선희, 고정범, 부진희

4.4x3.5x2.8m

알루미늄선, 나무목재, 전통순지

백두산 정기를 받은 호랑이가 제주까지 내려와 포효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 웅장함과 우렁참에 모든 역경이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만날 지겨지고
고상한 곳 민속자연사박물관



백두산 호랑이 한라산에 오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후원 서울대공원 제주대학교 박물관
Seoul Grand Park JEJU NATIONAL UNIVERSITY

제145회 특별전을 열며

호랑이는 몸집과 무늬, 이빨과 발톱을 보면 무섭고 난폭한 동물이지만, 옛 사람들은 힘센 호랑이를 잡귀와 악귀를 물리쳐주고 건강과 장수 그리고 복을 가져다주는 영특한 영물로 여겨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호랑이에 대해 느끼는 경외심과 친근함은 민화, 산신도, 상량문 등 일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열자는 호랑이가 물어서 살점이 뜯겨져 나갈 정도로 아픈 병이란 뜻으로, 조선시대에 여러 번에 걸쳐 호열자와 같은 역병이 전국적으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바람, 물, 가뭄 등 자연재해에 시달리던 제주에서도 여러 차례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도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산 속 가장 사나운 동물이지만, 한라산에는 호랑이가 살지 않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감염병이 자연을 소홀히 다룬 문명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과 코로나19 참사 1주년을 맞아, 호랑이가 살 수 있는 건강한 숲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산중호걸 호랑이를 통한 국난을 물리치고자 한 선인들의 기록과 지혜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자 『백두산호랑이』를 초청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노 정 래**

Siberian Tiger Comes to Mt. Hallasan

Tigers are scary and violent animals if only looking at their size, patterns, teeth, and claws. But people in the past considered them to be brilliant creatures that repel evil spirits and bring health, longevity, and good fortune. The Korean people have used their images in folk/religious paintings, mountain spirit painting, and other tools and decorations as the symbol of awe and familiarity.

We invited you to this exhibition, "Baekdusan Tiger(Siberian Tiger)", to comfort those who lost their everyday life due to the Covid-19 crisis by the records and wisdom of the ancestors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with these "a hero of the mountain".

VR전시관람



백두산호랑이 한라산에 오다



산중호걸 (山中豪傑)

호랑이의 생태와 분포 그리고 우리 문화 속 호랑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용호상박 (龍虎相搏)

한라산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용두암(龍頭巖), 남쪽에는 범섬(虎島)이 위치하고 있는 섬, 제주 속 호랑이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호시탐탐 (虎視眈眈)

호랑이의 먹이사슬과 호랑이의 생생한 영상을 만날 수 있다.

호시우행 (虎視牛行)

호랑이와 같은 야생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숲을 보존하는 길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막는 지름길이다.

2020. 12. 19.
2021. 03. 28.

수놓음관
특별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후원 서울대공원 제주대학교 박물관

제
145
회
특
별
전

목차 Contents

산중호걸 山中豪傑 10

- 백두산호랑이
- 호랑이 수염은 몇 가닥일까?
- 백두산호랑이와 친구들
- 백두산과 한라산의 야생동물
- 미소풍생(未嘯風生), 민화 속 호랑이

용호상박 龍虎相搏 22

- 한라산 99골 전설에 호랑이가 등장해요
- 호랑이를 닮은 서귀포시 범섬
- 호랑이 기운을 새긴 제주 초가 상량문
- 제주 역사 속 호열자와 감염병
- 감염병을 이겨낸 제주 사람들

호시탐탐 虎視眈眈 36

- 늑대를 잡아먹는 호랑이
- 호랑이의 털과 가죽
- 호랑이(육식동물)와 노루(초식동물)의 머리뼈
- 늑대와 백두산호랑이

호시우행 虎視牛行 46

- 호랑이 삼행시
- 호랑이를 얼마나 아시나요
- 행운과 행복의 상징, 호랑가시나무
- 호랑나비(심방나비)와 호랑지빠귀(귀신새)를 아시나요
- 십자수호랑이
- 호랑이를 사랑한 여우
- 호랑이는 왜 멸종위기종이 되었나요?
- 코로나바이러스와 호랑이 그리고 숲

참고문헌 61

부록 62

백두산호랑이
한라산에오다

산중호걸 山中豪傑



숲속 동물의 왕, 호랑이를 가리킨다.

호랑이의 생태와 분포 그리고 우리 문화 속 호랑이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백두산호랑이	12
호랑이 수염은 몇가닥일까?	13
백두산호랑이와 친구들	14
백두산과 한라산의 야생동물	16
미소풍생(未嘯風生), 민화 속 호랑이	18

백두산호랑이

Panthera tigris altaica / Siberian Tiger, Korean Tiger / 東北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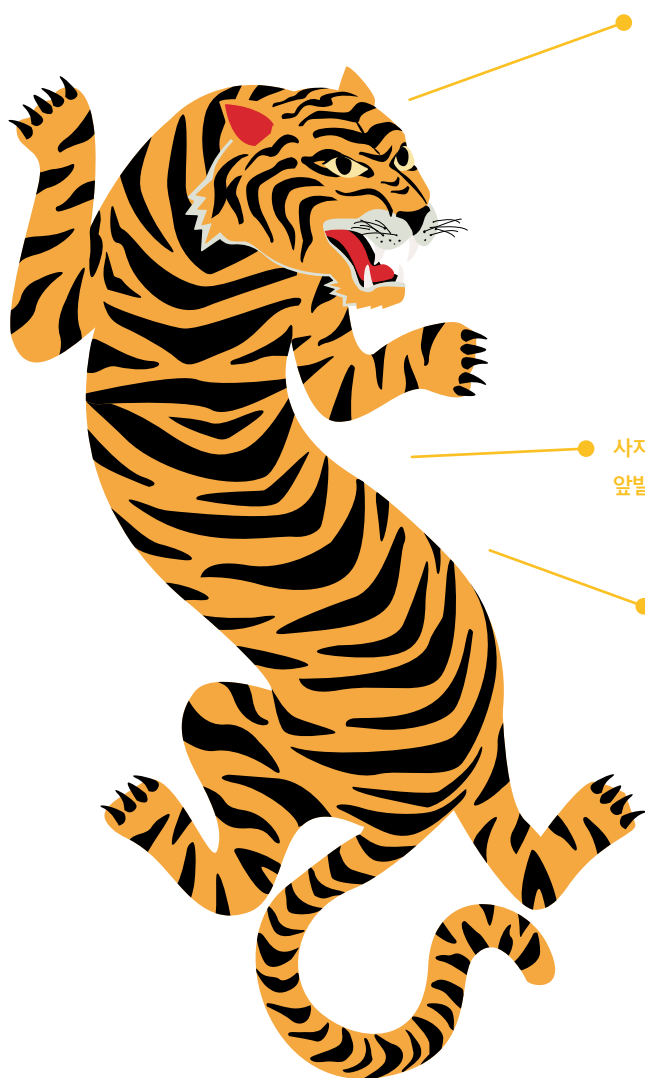
동물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에 속하며, 고양이과(Felidae) 표범속(Panthera)에 속하는 포유류이다. 백두산호랑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국경지대에 극히 제한되어 분포하는 종으로, 지역에 따라 '동북호랑이', '시베리아호랑이', '아무르호랑이', '조선범', '한국호랑이'라 부르기도 한다.

수컷이 암컷보다 크며, 몸 크기는 3m에 달하기도 한다. 머리는 둥글고 귀는 짧다. 사지는 굵고 튼실하며 발바닥은 널찍한데 앞발바닥은 발가락이 5개, 뒷발바닥은 발가락이 4개이다. 여름철에는 털이 짧아지고 색이 짙게 되면서 황갈색을 띤다. 겨울철에는 털이 길어지고 색이 옅어지면서 황색이나 담황색을 띄게 된다. 등과 몸통 양 옆에는 검은 색의 줄무늬가 있고, 앞이마에는 “王”자 모양의 무늬가 있다. 아래턱과 복부, 사지의 안쪽은 흰색이며, 검은색 줄무늬가 나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에 분포하는 백두산호랑이는 약 500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IUCN에서 적색자료 절멸위기종으로 등록될 정도로 국가차원에서 시급히 보호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다.

두동장(머리~항문) 140~280cm
꼬리 60~100cm
체중 180~350kg
번식 2~3년에 1번
임신기간 103~115일
출산기 5~6월
새끼 1~6마리
양육기간 1~2년
먹이 동물성(30~600kg)
서식환경 숲
활동 단독, 아행성
생활영역 100~400km²
일일 행동거리 15~20km
일일 최고 이동거리 80~120km
수명 15~25년

자료 도움. 한상훈 박사



수컷이 암컷보다 크고, 몸 크기는 3m
머리는 둥글고 귀는 짧아요.
이마에는 “王”자 모양의 무늬가 있어요.
특히 얼굴 부위의 무늬, 수염가닥 등은
개체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돼요.

사지는 굵고 튼실하며 발바닥은 널찍,
앞발은 발가락이 5개, 뒷발은 발가락이 4개예요.

여름철에는 털이 짧고, 짙은 황갈색을 띄어요.
겨울철에는 털이 길고,
옅은 황색이나 담황색을 띄게 돼요.
검은 색의 줄무늬가 있고,
아래턱과 복부, 사지의 안쪽은 흰색이고,
검은색 줄무늬가 나 있어요.

호랑이 수염은 몇 가닥일까? Whiskers of a Tiger

동물의 피부는 몸을 보호하고, 외부 촉각을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포유류의 피부에는 털, 수염, 가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호랑이의 줄무늬 털은 풀 속이나 숲 속에서 몸을 위장하는데 유리하다. 흰색의 수염은 입 양쪽에 수십 개의 가닥으로 길게 나 있으며, 아주 예민하다.

호랑이 수염은 왜 길고 뽀뽀할까? 호랑이는 자기만큼이나 큰 동물을 먹잇감으로 삼기 때문에, 잡은 동물을 확실히 죽인 후에 먹잇감을 먹는다. 이때 호랑이는 입가의 긴 수염을 먹잇감의 피부에 닿게 해서 먹잇감의 생존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먹이가 되살아나 도망칠 수가 있으며, 자칫 호랑이 자신이 다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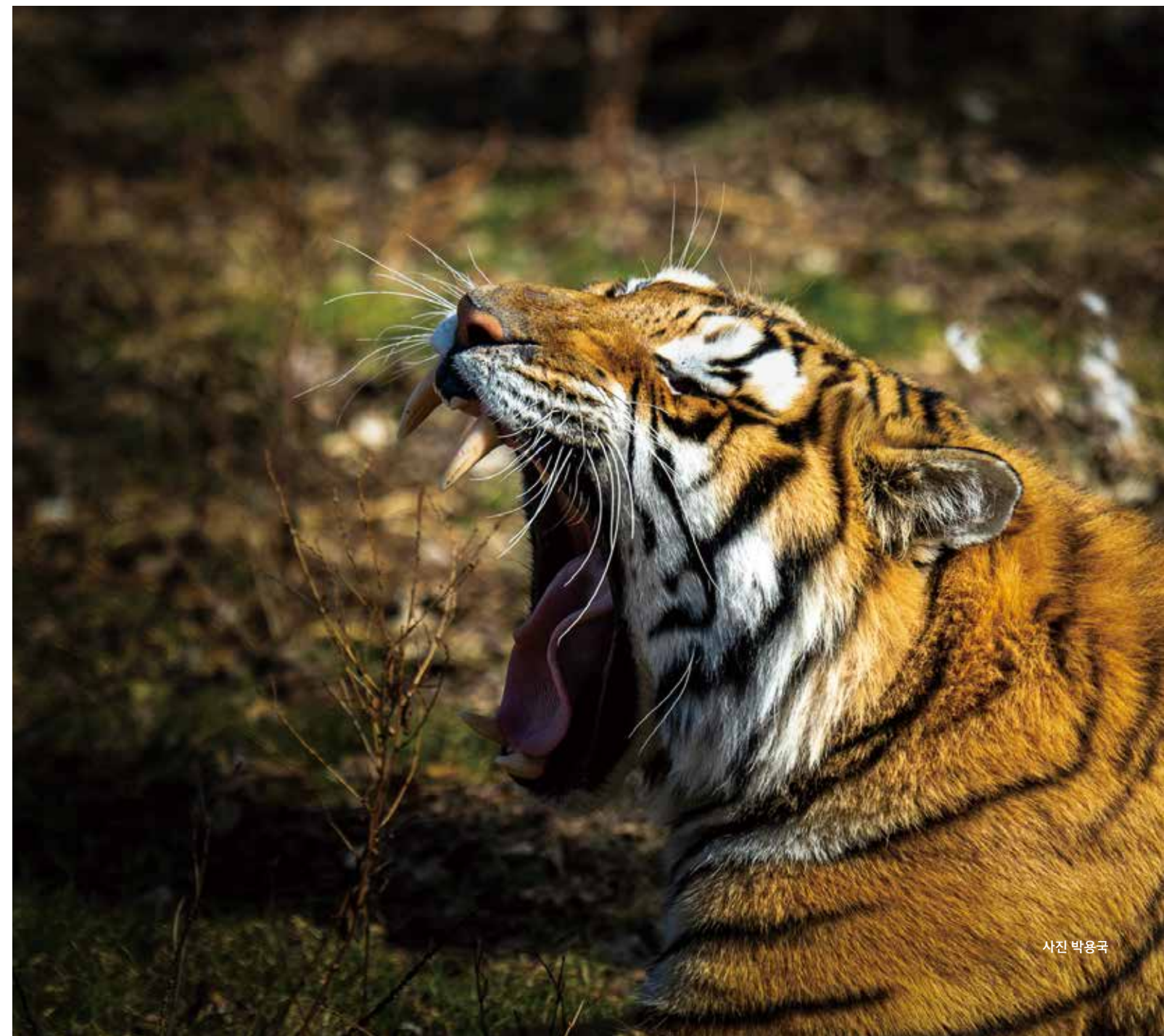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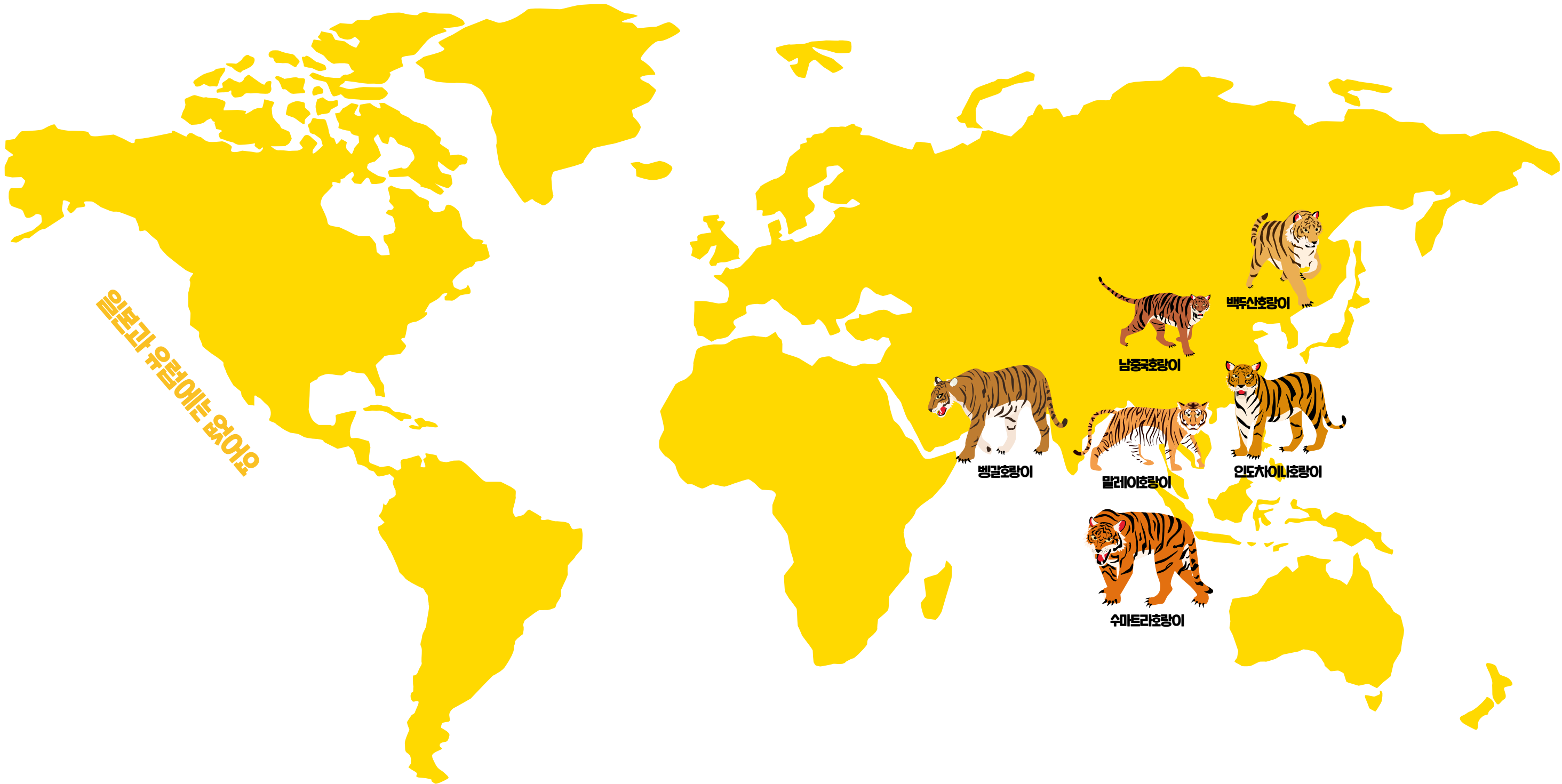


사진 박용국

백두산호랑이와 친구들
Slberian Tiger and Friends

세계적으로 지역에 따라 백두산호랑이(*Panthera tigris altaica*), 벵갈호랑이(*Panthera tigris tigris*), 남중국호랑이(*Panthera tigris amoyensis*), 수마트라호랑이(*Panthera tigris sumatrae*), 인도차이나호랑이(*Panthera tigris corbetti*), 말레이호랑이(*Panthera tigris jacksoni*) 등 6아종이 생존해 있으며, 카스피호랑이(*Panthera tigris virgate*), 자바호랑이(*Panthera tigris sondaica*), 발리호랑이(*Panthera tigris balica*) 등 3아종은 절멸하였다. 백두산호랑이가 체격이 가장 크고, 용맹스러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에 따라 몸 크기, 털가죽, 색깔,무늬 등이 다르며, 백두산호랑이의 털가죽이 가장 밝으며 추위를 이기기 위해 털이 길고 촘촘하다.



백두산과 한라산의 야생동물

Wild Animals of Mt. Baekdusan and Mt. Hallasan

백두산(중국어 장백산)은 북한과 중국이 각각 분할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온대성 기후에 속한다.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으며, 여름철과 겨울철의 온도차가 현저하다. 해발이 높아짐에 따라 기후 요소의 현저한 차이가 생긴다. 그와 연결된 토양과 식물의 분포는 매우 뚜렷한 수직 분포대를 보여준다. 해발 고도에 따라 구분해보면, 산지침엽활엽혼효림대(해발 600~1,100m지역), 산지침엽수림대 (해발 1,100~1,800m 지역), 산지악화(사스래나무)림대(해발 1,800~2,100m 지역), 산지초원대 (해발 2,100~2,746m)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백두산 일대의 동물상을 보면, 조류 285종 포유류 66종, 양서류 13종, 파충류 19종, 어류 129종, 곤충류 2,957종이 서식하고 있다. 희귀한 종으로는 호랑이, 반달가슴곰, 늑대, 대륙사슴, 스라소니, 호사비오리, 원앙, 두루미, 황새, 검독수리 등이 분포하며, 한라산에 비해 대형 포유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한라산에는 지질시대부터 호랑이는 살지 않았으며, 갈색곰은 빌레못동굴에서 골격이 발견된 적이 있다. 과거 한라산에 분포했던 멧돼지, 대륙사슴, 삿은 절멸되었으며, 현재 노루, 오소리, 족제비 등 소형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다.



늑대와 불곰



붉은사슴



두루미와 오리류



표범과 스라소니

사진 김완병(중국 장백산자연박물관에서 촬영)



한라산 백록담
사진 임재영



백두산 천지
사진 박용국

미소풍생(未嘯風生), 민화 속 호랑이 Tigers in Folk Paintings

미소풍생(未嘯風生)
울부짖지 않아도 바람이 일다

호랑이는 용맹과 무서움 그 자체의 상징성이 강하지만, 인간과 헤어질 수 없는 신령스러운 동물로 여겼다. 민화나 옛 이야기 속의 호랑이는 눈이 크게 뜬 우스운 모습이 많으며, 담배도 같이 피울 정도로 다정한 자세이다. 비록 호랑이가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맹수이지만, 호랑이의 기지를 빌어 재난이나 액운을 막기 위한 옛 사람들의 해학과 지혜가 민화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특히 산신도에는 산신과 백호가 함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두루미, 흰 두루미, 흰 사슴, 흰 코끼리, 흰 소가 등장하는데 모두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림 속에 산신과 호랑이는 동격인 동시에, 어진 호랑이의 모습은 마치 산신령의 심부름꾼임을 자처하는 듯하다.



산신도 山神圖
Mountain Spirit Painting
135 x 101.5cm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깊은 산골짜기에서 산신이 호랑이를 의자삼아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부채를 부치고 있다. 산신과 호랑이는 몸이 달라도 마음은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다.

산신도 山神圖
Mountain Spirit Painting
163.8x150.2cm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중앙의 산신 옆으로 백호가 자리하고 있으며, 화면의 좌우로 지물을 든 동자와 차를 달이는 동자가 있다. 호랑이는 산신의 화신이나 권위를 나타내는 존재이다.





호작도 虎鵲圖 A Tiger and Two Magpies Painting

백성들을 위안하는 까치와 호랑이

소나무 꼭대기에 앉은 까치 두 마리와 그 아래에 호랑이를 그렸다.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호랑이는 잡귀를 막아준다고 해서, 선조들은 호작도를 대문이나 벽에 걸었다. 또다른 의미로서 아무리 강한 호랑이지만 까치처럼 날지 못하듯, 사람 사는 세상은 신분을 따지지 말고 힘을 합쳐야 사악한 기운을 막아낼 수 있다. 인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호랑이를 해학적으로 그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길 바라면서, 호열자와 같은 감염병을 물리칠 수 있기를 비는 수호적 기능이 강한 그림이다.

호작도

작가: 청광 김용대

44.5 x 60.6cm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삼호도 三虎圖 Three Tigers Painting

61 x 102cm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 두 마리가 노는 그림이다. 용맹성이 뛰어난 호랑이 가족이 화목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악귀와 잡귀를 물리쳐주는 벽사(辟邪)의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다.



호랑이의 용맹성을 담은 효제문자도(孝悌文子圖)

Hyojemunjado Painting of Characters

문자도는 글자 속과 밖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병풍으로, 특히 효제문자도는 조선시대 건국이념인 유교철학의 기본윤리를 집약한 '효제충신예의엄치(孝弟忠信禮義廉恥)' 여덟 문자를 그림으로 표현한 문자도 병풍이다. 그리고 용(龍), 호(虎), 구(龜) 등의 글자를 이용한 문자도는 수호적 상징성이 강하다. 제주문자도 속의 주 소재로 등장하는 새와 물고기, 나무와 풀, 꽃과 기물 등의 표현은 제주사람들의 자연 순응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효제문자도

44.5 x 126.7cm x 8폭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孝弟忠信禮義廉恥

아버이에 대한 효도, 형제 간 우애, 임금에 대한 충성, 벗 간의 믿음, 예절, 의리, 청렴, 부끄러움을 아는 태도

백두산 호랑이
한라산에 오다

용호상박 龍虎相搏



용과 호랑이의 실력이 막상막하하다는 뜻으로, 한라산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용두암(龍頭巖), 남쪽에는 범섬(虎島)이 위치하고 있는 섬, 제주 속 호랑이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라산 99골 전설에 호랑이가 등장해요	24
호랑이를 닮은 서귀포시 범섬	26
호랑이 기운을 새긴 제주 초가 상량문	28
제주 역사 속 호열자와 감염병	30
감염병을 이겨낸 제주 사람들	34

한라산 99골 전설에 호랑이가 등장해요

The Legend of “99 Valleys”

제주시 서남쪽 해안리(海安里) 경(境), 제2횡단도로 가에 '아흔아홉 골'이라는 산이 있다. 크고 작은 골짜기가 마치 발고랑처럼 뺨어 내린 기봉(奇峯)이다. 그 골짜기가 하도 많으니, 아흔아홉 개가있다 하여 이름을 '아흔아홉 골' 이라 한다.

이 골짜기가 하나만 더 있어 백 골이 됐다면 제주에도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날 것인데, 한 골이 모자라 아흔아홉 골밖에 안 되므로 호랑이나 사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일설에는 이 골짜기에 본래 백 골이 있었는데, 그 때는 많은 맹수들이 나와 날뛰고 있었다 한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중국에서 스님이 한 사람 건너와서 백성들을 모아 놓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맹수들을 없애 줄 터이니 '대국 동물대왕 입도(大島)'라고 큰소리로 외치라 했다 한다. 호랑이니 사자 따위 무서운 짐승을 없애 준다고 하니, 백성들은 좋아해서 큰소리로 외쳤다. 그랬더니 기이하게도 모든 맹수들이 이 백 골에 모여들었다.

스님은 불경을 한참 외고 나서, "너희들은 모두 살기 좋은 곳으로 가라. 이제 너희들이 나온 골짜기는 없어 지리니, 만일 너희들이 또 오면 너희 종족이 멸하리라." 맹수들을 향해 소리 치니, 호랑이·사자·곰 할 것 없이 다 한 골짜기로 사라졌다. 그 순간 그 골짜기도 없어져 버렸다. 그 후부터 제주에는 맹수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은 호랑이 같은 맹수가 아니 나게 되자, 제주에는 왕(王)도, 큰 인물도 아니 나오게 되어 버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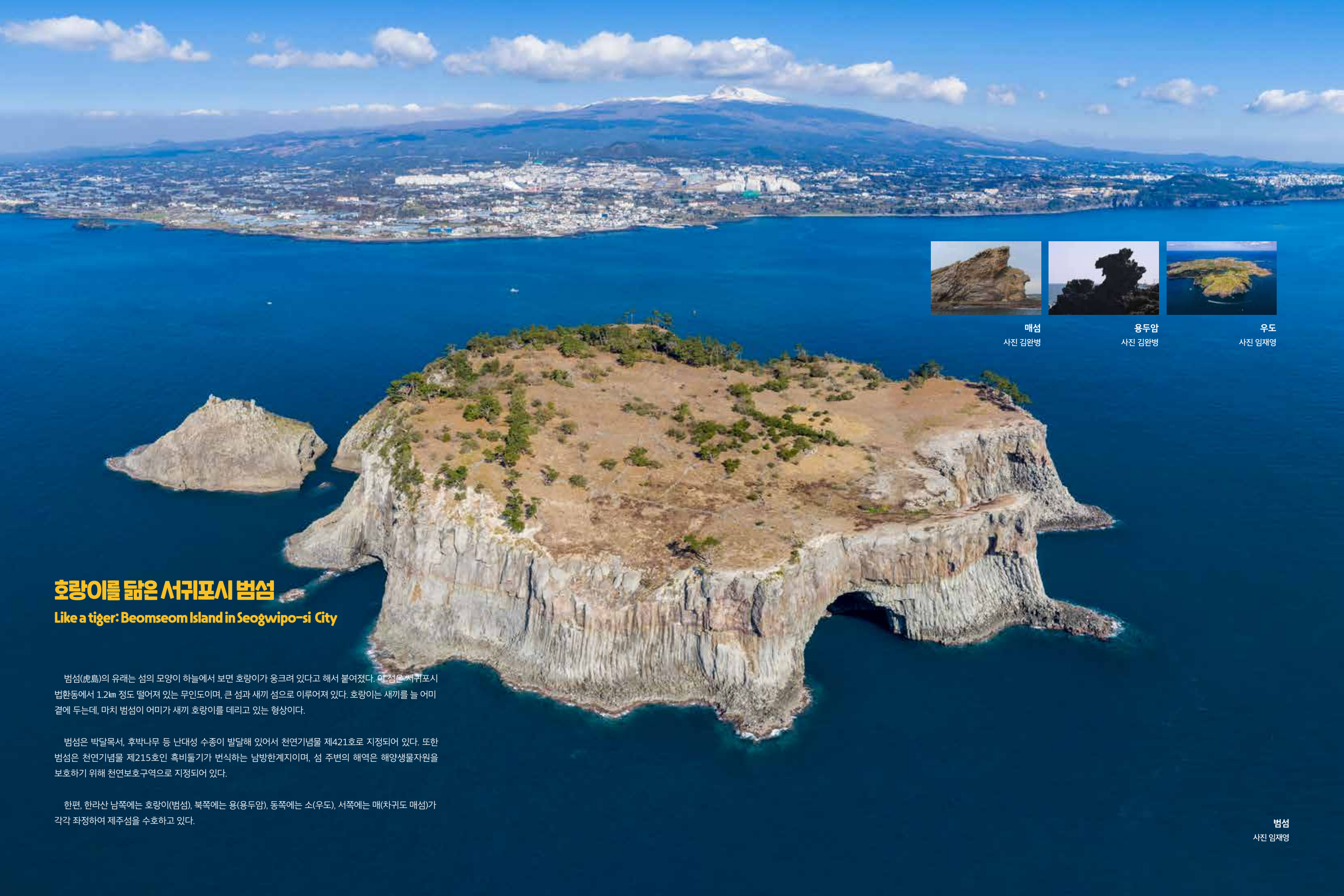
[제주도 전설, 1996, 현용준]



한라산 아흔아홉 골
사진 임재영



만화 강주희 작가



매섬
사진 김완병



용두암
사진 김완병



우도
사진 임재영

호랑이를 닮은 서귀포시 범섬

Like a tiger: Beomseom Island in Seogwipo-si City

범섬(虎島)의 유래는 섬의 모양이 하늘에서 보면 호랑이가 웅크려 있다고 해서 붙여졌다. 이 섬은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1.2㎞ 정도 떨어져 있는 무인도이며, 큰 섬과 새끼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호랑이는 새끼를 늘 어미 곁에 두는데, 마치 범섬이 어미가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있는 형상이다.

범섬은 박달목서, 후박나무 등 난대성 수종이 발달해 있어서 천연기념물 제421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범섬은 천연기념물 제215호인 흑비둘기가 번식하는 남방한계지이며, 섬 주변의 해역은 해양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한라산 남쪽에는 호랑이(범섬), 북쪽에는 용(용두암), 동쪽에는 소(우도), 서쪽에는 매(차귀도 매섬)가 각각 좌정하여 제주섬을 수호하고 있다.

범섬
사진 임재영

호랑이 기운을 새긴 제주 초가 상량문(上樑文)

Sanglyangmun of Jeju Thatch

상량(上樑)은 집을 지을 때 기둥에 보를 얹고 그 위에 마룻대를 올리는 과정으로, 상량문(上樑文)은 바로 집을 짓거나 고칠 때, 집의 내력이나 공역 일시 등을 적은 기념글이다. 보통 대들보에 쓰거나, 간혹 종이에 써서 보관하기도 한다. 상단에 용(龍)자, 하단에 구(龜)자를 쓰며, 용(龍)자는 거꾸로 써서 구(龜)자와 마주 보도록 한다. 간혹 제주 초가에서 구(龜)자 대신에 호(虎)자를 쓰며, 대문에다 용호(龍虎)를 써서 붙여놓기도 한다. 용(龍)과 거북(龜)은 물의 상징으로 화재와 액운을 막아주며, 호(虎, 호랑이)는 사악함을 물리치는 벽사(辟邪) 효험과 담대한 기운을 지니고 있다.

“靑龍 丙子...日 丙子時 上樑 千災消滅 萬福祥臻 白虎”
 “병자년... 일 병자시에 대들보를 올리다, 온갖 재앙이 소멸되고 만복과 상서로움이 모여든다”

번역 김태희



상량문
 380x20cm
 소장 문창민 / 사진 이창훈



성읍민속촌 고평오 고택 용호 상량문



용호 상량문
 안덕면 사계리 문막 갤러리
 (1986년 감골 창고 상량)



용구 상량문
 성읍민속촌 정의현성 동문



용구 상량문
 제주민속촌박물관 쉼터



용호 문첩(門帖)
 애월읍 장전리 농가 창고

제주 역사 속 호열자와 감염병

Cholera and Other Infectious Diseases in Jeju History

호열자(虎列刺)는 호랑이가 물어서 살점이 뜯겨져 나갈 정도로 아픈 병이란 뜻으로, 조선시대에는 전염병을 역질, 괴질, 역병, 역려 등으로 불리었다. 바람, 물, 추위 등 삼재(三災) 이외에 각종 전염병으로 수많은 제주 도민들이 희생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전국적으로 호환 피해 기록이 다수 있으며, 관련된 호환(虎患)을 비롯하여 다수 있으며, 제주와 관련된 호열자, 괴질, 역질 등 감염병 기록은 다음과 같다.

¹⁾
1714년(숙종 40년 3월 24일)

제주에 역질이 크게 유행하여 1천여 명이 죽다.

²⁾
1714년(숙종 40년 4월 21일)

전교(傳敎)하기를, “오늘 제주의 공인(貢人)을 다시 차비문(差備門)으로 불러들여 본주(本州)의 진정(賑政)과 모맥(牟麥)의 형편과 여역(癘疫)의 지식(止息) 여부를 물었더니, 이른바 여역은 염병도 아닌데 너댓새 누워 앓다가 1개월 안에 4백여 명이나 죽었다 한다. 지극히 놀라 우며 참혹하다. 의사(醫司)로 하여금 이에 상당한 약품을 시급히 넉넉하게 보내어 각별히 구로(救療)하도록 하라.” 하였다.

³⁾
1757년(영조 33년 8월 25일)

제주(濟州)의 세 고을에 역질(疫疾)이 크게 번져 사망한 자가 5백여 명에 이르렀고, 경기(京畿)·함경(咸鏡) 양도(兩道)에 더욱 치성(熾盛)하여 죽은 자가 수없이 많았다.

⁴⁾
1822년(순조 22년 10월 19일)

돌림병이 치성한 제주도에 위유 어사 조정화를 보내 위로하고 살피고 오게 하다

하교하기를,

"지금 제주 목사의 장계를 보건대, 돌림병이 치성하여 조그만 섬에서 수천 명이 넘게 인명이 손실되었다고 하니, 놀랍고 참혹함을 금하지 못하겠다. 묘당으로 하여금 위유 어사(慰諭御史)를 파견하여 제주 목사와 함께 위안제(慰安祭)를 설행하여 생사(生死)에서 해매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울러 민간의 고통도 살피고 오게 하라."

하니, 조정화(趙庭和)로 아뢰어 위유 어사로 차출하였다.



1

숙종실록 / 1714년 (숙종 40년 3월 24일)



2

숙종실록 / 1714년 (숙종 40년 4월 21일)



3

영조실록 / 1757년 (영조 33년 8월 25일)



4

순조실록 / 1822년 (순조 22년 10월 19일)

⁵⁾
1822년(순조 22 10월 19일)

제주·대정·정의 백성들에게 위유하는 교서를 내리다

제주·대정(大靜)·정의(旌義) 백성들에게 유시하였다. 그 교서에,

”아! 너희 탐라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사는 곳은 큰 바다 건너 외딴섬의 먼 고장이다. 굶주리면 먹여주기를 기대하지마는 혜택이 미치지 않았고, 궁핍하면 구제해 주기를 기다렸지마는 인정(仁政)을 베풀 겨를이 없었다. 이를 비유하자면, 마치 어린아이를 보이지 않는 곳에 두었을 때 항상 품에 있는 아이보다 먼저 울면 젖 주고 싶고 어루만져 주고 싶은 심정과 같아, 남쪽을 바라보는 일념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 유행의 **괴질(怪疾)**이 천리의 바다 밖**에까지** 넘어가 마을에서 마을로 전염되어 마치 불이 들판을 태우듯이 한 바람에 3읍(三邑)의 사망자가 거의 수천 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아! 이게 무슨 재앙이란 말인가? 예로부터 너희들의 고장은 수성(壽星)이 비쳐 거주민들이 질병이 적다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번 재앙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는 진실로 내가 덕이 없어 상서로운 기운을 이끌어 먼 곳까지 널리 감싸주지 못한 소치이므로, 두렵고 놀라워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아! 사망자가 속출할 때에는 벼로 염하기도 어려울 터인데 널에 넣은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너희가 살아서는 제대로 살지 못하였고 너희가 죽어서는 한(恨)만 지니고 가게 하였으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애처롭게 여기는 바이다. 산에 있는 초빈(草殯)은 여우들이 짓밟고 골짜기에 묻은 시체는 비바람에 떠내려갈 터인데 흑시라도 뼈를 묻는 정사를 소홀히 한다면 너희가 필시 이마에 땀이 나는 아픔이 있을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측은하게 여기는 바이다. 비록 돌림병의 기세가 사그라져 마을이 다소 깨끗해졌다고는 하나, 의지할 데 없는 홀아비나 홀어미는 누구를 믿고 살며 젖을 잃은 어린아이는 누가 보호해 기를 것인가? 죽은 사람은 물론 불쌍하지만 산 사람도 더욱 가련하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딱하게 여기는 바이다. 병을 치료하다가 살림을 없애지는 않았는가? 수확할 때에 시기를 놓치지는 않았는가? 목사의 장계를 본 뒤로는 너희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고 신음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여 병침(丙枕)에 촛불을 켜고 날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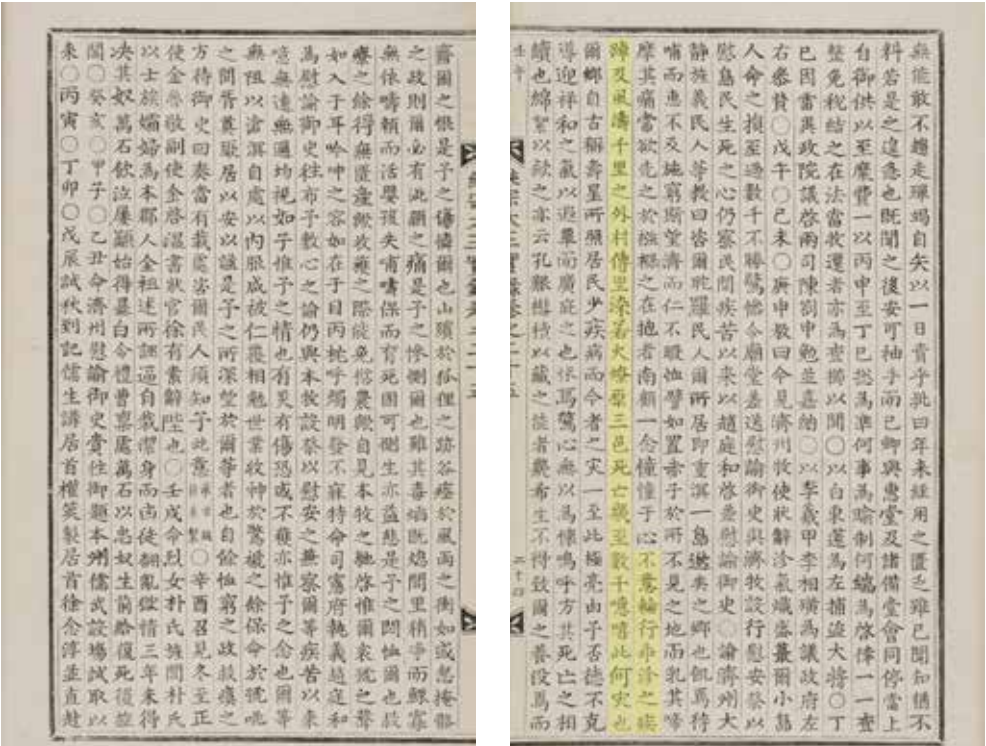
이에 특별히 사헌부 집의 조정화(趙庭和)를 위유 어사로 삼아 내려 보내어 나의 진심에서 나온 유시를 반포하게 하고, 아울러 목사와 함께 제사를 지내어 위안하게 하고 겸하여 너희들의 고통을 살피고 오게 하였다. 아! 멀고 가까움이 없이 동일하게 자식처럼 보는 것이 나의 심정이고, 재해나 총해가 있어 흑시라도 추수를 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 나의 염려이다. 너희들은 큰 바다가 가로막혔다고 여기지 말고 내지와 같이 자처하여, 다함께 인천(仁天)의 감싸움을 입고 서로 세업(世業)에 힘쓰며, 혼비백산한 중에서도 정신을 수습하고 울부짖는 사이에서도 목숨을 보전하여 서로 거처를 안정하여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깊이 바라는 바이다. 이밖에 궁핍을 돕는 정사나 폐막을 구제하는 방안을 어사가 돌아와 보고하면 재량해 처리할 것이니, 너희 백성들은 나의 이 뜻을 알도록 하라.“

1895년(고종 32 윤5월 14일)

호열자병 예방 규칙을 반포하다.

內部令第二號, 虎列刺病豫防規則, 頒布

내부령(內部令) 제2호, 〈호열자병 예방 규칙(虎列刺病豫防規則)〉을 반포하였다.



5

순조실록 / 1822년 (순조 22년 10월 19일)

1895년(고종 32 6월 4일)

중앙과 지방에 전염병이 크게 성하므로 **호열자**·소독 규칙과 예방 및 소독 집행 규정을 모두 공포하다.

初四日。京外大疫內部令第四號, 第五號虎列刺病消毒規則과 豫防及消毒執行規程, 並公布

중앙과 지방에 전염병이 크게 성하였다. 내부령(內部令) 제4호와 제5호, 〈호열자병 소독 규칙(虎列刺病消毒規則)〉과 〈호열자병 예방 및 소독 집행 규정(虎列刺病豫防及消毒執行規程)〉을 모두 공포하였다.

1909년(순종 2 9월 25일)

위험한 우물 사용을 금지하다.

警視廳告諭第三號: "虎列刺病이 益益猖獗하느바 警察官이 危險중출노 認恩 井水는 使用을 禁止하고 現今間은 大韓水道會社共用水栓으로 卽無料給水 糺지니 勿論何人하고 自由로 此를 使用하고 或禁止恩 井水를 暗用하고야 危險에 陷하느 等事가 無하도록 各自注意 함이 可호."

경시청 고유(警視廳告諭) 제3호는 다음과 같다.

호열자병(虎列刺病)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만큼 경찰관이 위험하다고 인정하는 우물물은 사용을 금지하고 당분간 대한수도회사(大韓水道會社) 공용 수전(水栓)으로 무료로 급수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유로 이것을 사용하되 금지시킨 우물물을 몰래 사용하여 위험에 빠지는 등의 일이 없도록 각자가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감염병을 이겨낸 제주 사람들

Cholera and Jeju People

제주 사람들은 호열자, 역질과 같은 감염병을 비롯한 가족의 건강과 마을의 평안을 위해 신당(神堂)을 찾았는데, 이형상(1653~1733) 제주 목사(재임기간 : 1702. 03 ~ 1703. 06)는 이를 부정한 제사로 여겼다. 한편으로는 여단(厲壇)에서 역질을 막는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제주 사람들은 가족의 안위를 위해 심방을 초청하여 집안에서 귀신을 달래는 굿을 하며, 특히 심방들은 마을과 각종 행사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마을의 신당이나 행사장에서 굿을 이끈다.

무사안녕을 위한 무속 신앙, 굿

Jeju Sham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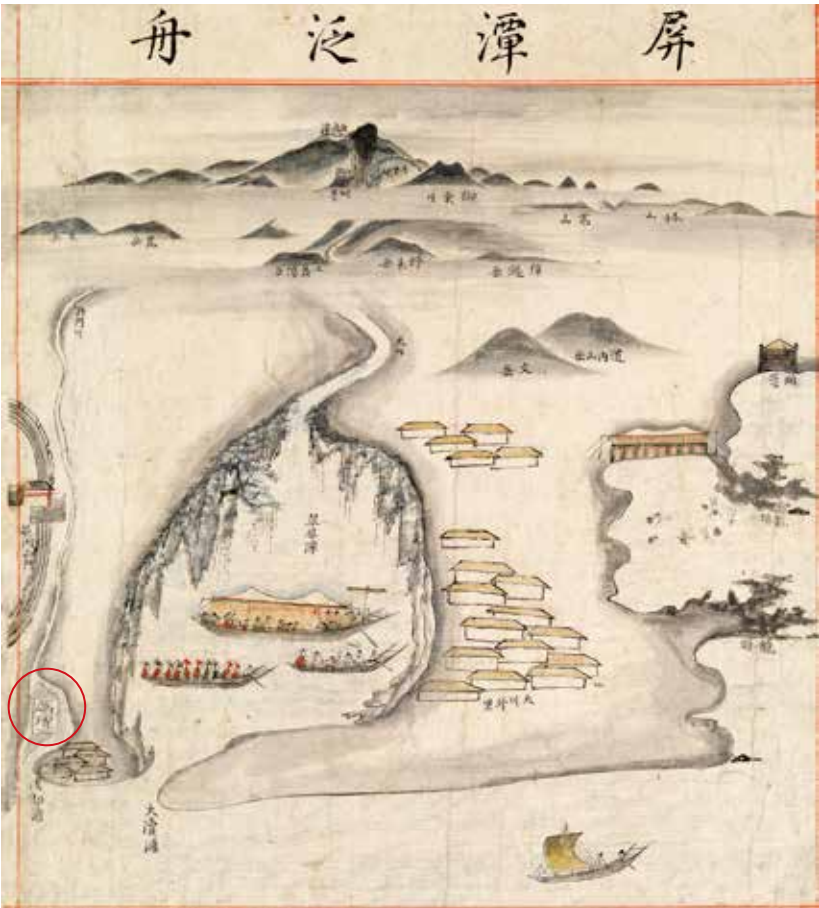
제주 사람들은 가족의 안위를 위해 심방을 초청하여 집안에서 귀신을 달래는 굿을 하며, 특히 심방들은 큰굿, 영등굿, 마불림굿, 사가굿 등 마을과 각종 행사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마을의 신당이나 행사장에서 굿을 이끈다.

사진 영등송별제 장면(주관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 사진 김기삼)



건포배은(巾浦拜恩)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 1702 / 이형상 /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소장

관리들이 건입포와 관덕정 마당에 모여 임금의 은혜를 황송하고 고맙게 받는 장면이다. 이 그림 속을 보면 신당(神堂)이 불타고 있는데, 이는 제주 사람들의 무속 신앙을 폐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당시 129개소의 신당을 불태웠다.



병담범주(屏潭泛舟)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 1702 / 이형상 /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소장

취병담(지금의 용연)에서 뱃놀이를 지내는 장면이다. 지금의 병문천 하류에 여단(厲壇, 빨간 원형)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나라에 역질이 돌 때 여귀(厲鬼)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봄철에는 청명예, 가을철에는 7월 보름예, 겨울철에는 10월 초하루에 지냈다.

백두산 호랑이
한라산에 있다

호시탐탐 虎視眈眈



호랑이가 매처럼 눈을 부릅뜨고 먹잇감을 노려본다는 뜻으로,
호랑이의 먹이사슬과 백두산호랑이 생생한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늑대를 잡아먹는 호랑이	38
호랑이의 털과 가죽	42
호랑이(육식동물)와 노루(초식동물)의 머리뼈	43
늑대와 백두산 호랑이	44

늑대를 잡아먹는 호랑이

The Food Chain of Tigers

호랑이는 청각, 시각, 청각 등을 통해 먹잇감을 찾는다. 혼자서 숲속을 돌아다니다가, 먹잇감을 포착하며 조용히 접근하여 덮친다. 주 먹이는 말사슴, 늑대, 노루, 멧돼지이며, 농경지나 민가로 내려와 소를 공격하기도 한다. 오소리, 스라소니, 삥, 멧토끼, 꿩 등과 같은 소형 동물도 잡아먹는다. 보통 산등성이나 바윗돌에 숨어서 활동하거나 잠복해 있다가, 주로 새벽이나 황혼 무렵에 활동하며 활동 범위는 매우 넓다.

촬영 박용국 (전 중국장백산자연박물관장, 1~7), 김완병 (8, 9)
장소 중국 길림성 장백산호림원



1

2



3



4







호랑이의 털과 가죽
Furs and Skins of Siberian Tiger

호랑이는 몸에 줄무늬가 나 있어 숲속에서 위장하는데 유리하다. 일부 사람들은 호랑이의 위염과 용맹성을 내세워, 상업적 목적으로 가죽을 밀거래하면서 호랑이의 멸종을 부추기고 있다.



시베리아호랑이
사진 박용국

호랑이(육식동물)와 노루(초식동물)의 머리뼈
Skulls of a Carnivorous Animal and a Herbivorous Animal

포유류의 머리뼈는 뇌와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을 담당하는 기관을 보호한다. 머리뼈, 턱뼈, 이빨 구조를 보면, 그 동물의 사냥방법을 알 수 있다. 노루와 같은 초식동물의 앞니는 풀을 자르는데 유리하고, 어금니는 풀을 찢고 씹을수 있도록 넓고 평평하다. 반면, 호랑이와 오소리 같은 육식동물의 송곳니는 먹잇감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도록 날카로우며, 어금니는 살을 자르고 뜯어낼 수 있도록 뾰족하게 생겼다.



호랑이 머리뼈 (상, 하) The Skull of Siberian Tiger
35 x 22 x 15cm / 서울대공원 소장



노루 머리뼈 The Skull of Roe Deer
25 x 19 x 25cm / 서울대공원 소장



오소리 골격 The Skeleton of Eurasian Badger
70 x 28 x 27cm /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노루 가족
사진 김완병

늑대(북한명 말승냥이)

Canis lupus chanco / Gray Wolf / 狼 / オオカミ

개의 조상이며, 개과(Canidae) 동물 중에서 몸집이 가장 크다.
한반도를 비롯하여 중국, 몽골, 러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하며, 일본 북해도에 서식하던 늑대는 절멸하였다.
보통 무리 생활을 하며, 협력 사냥에 능하다.

습득 및 전시 경위

2005년 12월 13일 북한 평양중앙동물원에서
서울대공원으로 반입된 이후,
2017년 12월 13일 폐사하였다.

출생지

평양중앙동물원(수컷, 출생년월일: 2004. 11. 30.)

표본 제작

2018년 05월(박제사: 윤지나)

표본 크기

120 x 62 x 90cm

표본 소장

서울대공원



늑대와 백두산호랑이

Gray Wolf and Siberian Tiger

백두산호랑이

Panthera tigris altaica / Korean Tiger, Siberian Tiger / 東北虎

습득 및 전시 경위

남북관계 정상화를 기원하기 위해, 1999년 1월 22일 인천 연안부두를 통해 북한 평양중
앙동물원에서 서울대공원으로 반입된 이후, 2014년 4월 15일 폐사하였다.
북한 낭림산맥에서 야생에서 포획됐다고 해서 '낭림'이란 이름을 붙였다.

출생지

1993년 북한 자강도 낭림군(암컷)

표본 제작

2016년 8월(박제사: 윤지나)

표본 크기

175 x 100 x 71cm

표본 소장

서울대공원



백두산 호랑이
한라산에 오다

호시우행 虎視牛行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간다는 뜻으로, 예리한 통찰력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호랑이와 같은 야생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숲을 보존하는 길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막는 지름길이다.

호랑이 삼행시	48
호랑이를 얼마나 아시나요	49
행운과 행복의 상징 호랑가시나무	51
호랑나비(심방나비)와 호랑지빠귀(귀신새)를 아시나요	52
십자수호랑이	54
호랑이를 사랑한 여우	56
호랑이는 왜 멸종위기종이 되었나요?	58
코로나바이러스와 호랑이 그리고 숲	60

호랑이로 삼행시를 지어볼까요?
 Shall we make a three-line acrostic poem
 with the tiger(Ho-Rang-I)?

호랑이 삼행시

호 호 겨울바람이 부는 아침에
랑 랑하고 호탕한 기운을 주고자
이 백두산호랑이를 초청했습니다.

호 시탐탐 조심해야 해요. 호
랑 이는 늘 노력합니다.
이 리저리 돌아다니지 마세요.

호 _____
랑 _____
이 _____

호 _____
랑 _____
이 _____

호 _____
랑 _____
이 _____

호 _____
랑 _____
이 _____

호랑이를 얼마나 아시나요

OX 퀴즈

1 용호상박은 ‘용과 호랑이는 서로 만나면 으르렁한다’는 사자성어이다.

2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호랑이가 이긴다.

3 호랑이는 꽃감을 무서워한다.

4 호랑이는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산다.

5 호랑이 앞뒤 발가락이 모두 5개이다.

6 호랑이는 일본과 미국에도 산다.

7 호랑가시나무는 제주에 분포한다.

8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다급한 경우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다는 속담이다.

9 ‘세계 호랑이날’은 매년 9월 마지막 일요일이다.



OX 퀴즈 정답

1 용호상박은 ‘용과 호랑이는 서로 만나면 으르렁한다’는 사자성어이다.

- 龍虎相搏. 용과 호랑이가 서로 치고 싸운다는 뜻으로, 두 경쟁자의 실력이 막상막하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호랑이와 관련된 사자용어로는 호가호위(狐假虎威), 호소풍생(虎嘯風生), 호사유피(虎死留皮), 호시탐탐(虎視眈眈) 등이 있다.

2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호랑이가 이긴다.

- X 서로 싸워 본 적이 없다.
호랑이와 사자는 같은 표범(*Panthera*)속하는 포유동물로 서로 사는 서식지가 다르다.
호랑이는 아시아, 사자는 아프리카에 분포한다.

3 호랑이는 꽃감을 무서워한다.

- X 꽃감을 먹지 않는다.
전래동화 “호랑이와 꽃감(마해송, 1933)”에 나오는 이야기로, 울던 아이가 호랑이가 와도 울음을 그치지 않지만, 어머니가 꽃감을 주겠다고 하니 울음을 그쳤다.
문 밖에서 어머니와 아이의 대화를 듣고 있던 호랑이가 꽃감이 있다는 말에 도망갔다.

4 호랑이는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산다.

- X 호랑이는 한라산을 제외하고 지리산, 인왕산, 설악산, 금강산, 백두산에 분포하는 종이었지만, 지금은 백두산 일대에 제한적으로 살고 있다.

5 호랑이 앞뒤 발가락이 모두 5개이다.

- X 앞발바닥은 발가락이 5개, 뒷발바닥은 발가락이 4개이다.



6 호랑이는 일본과 미국에도 산다.

- X 호랑이는 일본, 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에는 분포하지 않고, 일부 동물 동물원의 호랑이는 아시아에서 수입한것이다.

7 호랑가시나무는 제주에 분포한다.

- 호랑가시나무는 중국, 한국, 제주도에 분포하는 늘푸른나무입니다.

8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다급한 경우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다는 속담이다.

- 호랑이와 관련 생활 속담으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호랑이 그리러다가 고양이 그린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등이 있다.

9 ‘세계 호랑이날’은 매년 9월 마지막 일요일이다.

- X ‘세계 호랑이’날은 매년 7월 29일이다. 이는 2010년 11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호랑이 정상회의를 통하여 지정한 날이며, 매년 9월 마지막 일요일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지정한 호랑이날로, 2000년부터 시작한 지역 축제일이다.

행운과 행복의 상징, 호랑가시나무

Ilex cornuta / Horned Holly / 枸骨, 描兒刺 / ヒイラギモドキ

호랑가시나무는 1~4m 정도 자라는 늘푸른 관목으로, 꽃은 4~5월에 피며, 열매는 10~12월에 붉게 핀다. 관상가치가 높아 집 울타리에 많이 심으며, 특히 빨간 열매는 사랑의 열매를 연상할 정도여서 호랑가시나무를 성탄절 트리로 이용한다. 잎은 두텁고 윤기가 나며, 잎의 각점에 가시가 나 있다. 이 가시가 워낙 날카로워서 호랑이 발톱을 닮았다고 해서 또는 호랑이가 등이 가려우면 앞애다 문질러댄다고 해서 ‘호랑가시나무’라는 이름이 붙어졌다. 제주에서는 가시가 많은 엉겅퀴(제주어 소웁이)를 닮은 나무(제주어 낭)라 해서 ‘남소웁이’이라 한다. 한편, 완도호랑가시나무(*Ilex x wandoensis*)는 호랑가시나무와 감탕나무(*Ilex integra*) 간의 자연교잡종으로, 성장하면서 잎의 가시가 점차 사라진다.

호랑가시나무의 꽃말은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의미하며, 나라마다 전해지는 소원 이야기가 있다. 유럽에서는 악마들이 무서워하는 호랑가시나무를 집 주변이나 마구간에 걸어두며, 영국에서는 호랑가시나무 지팡이를 만들어 짊고 다니면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호랑가시나무 가지에 정어리 머리를 꿰매어 처마 밑에 매달아 놓으면, 호랑이 발톱 닮은 가시는 귀신의 눈을 찌르고 정어리의 눈은 귀신을 노리기 때문에 악귀가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전해진다. 특히 중국에서는 호랑이를 화재, 도난, 사악함 등의 가정 내 3대 재난을 몰아낼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사진 호랑가시나무 (김완병) 도움 송관필 박사



호랑나비(심방나비)와 호랑지빠귀(귀신새)를 아시나요

호랑나비 *Papilio xuthus* / Tiger Swallowtail / 金凤蝶 / アゲハチョウ
호랑지빠귀 *Zoothera aurea* / White'sThrush / 虎斑地鸫 / トラツグミ

호랑이의 털 색깔과 무늬를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호랑나비는 제주어로 '심방나비'라고 한다. 곶을 하는 무당(제주어 심방)의 옷차림처럼 호랑나비의 날개가 화려하다. 날개 편 길이가 70~100mm 정도로, 암컷이 수컷보다 조금 크다. 뒷날개의 양쪽에 검은색 반점이 나 있다. 산호랑나비는 저지대 보다 산 능선에 많으며, 종실에 사선 모양의 무늬가 없어 호랑나비와 구별된다.

호랑지빠귀는 곳자왈이나 계곡 숲에서 번식하는 텃새이며, 지렁이를 특별히 좋아한다. 저녁 무렵에 '히이이' 하고 금속 소리에 가까운 울음소리를 내어 일부 지역에서는 '귀신새'라 부른다. 일본에서는 호랑지빠귀의 울음소리가 등골이 오싹하고 공포감을 느낄 정도여서 별명을 '누에'라 한다. 일본 전설에 의하면, 누에(ヌエ)는 밤에 우는 괴물로 머리가 원숭이 같고 몸은 너구리를 닮았으며, 꼬리는 뱀처럼 생겼다고 전해진다.

호자나무(*Damnacanthus indicus*)는 제주도를 포함하여 아시아에 분포하는 상록관목으로, 호랑이 발톱처럼 생긴 날카로운 가시가 나 있다. 호랑거미(*Argiope amoena*)와 제주호랑하늘소(*Xylotrechus atronotatus*)도 몸에 호랑무늬를 가지고 있으며, 둘 다 제주도에 서식하고있다.



사진 김완병

호랑나비

Papilio xuthus / Tiger Swallowtail



사진 김완병

산호랑나비

Papilio machaon / Old World Swallowtail



사진 조영균

호랑지빠귀

Zoothera aurea / White'sThrush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1 제주호랑하늘소

Xylotrechus atronotatus subscalaris
Jeju Tiger Longicorn Beetle

호자나무

2 *Damnacanthus indicus*
Indian Damnacanthus

호랑거미

3 *Argiope amoena*
Far Eastern Black-and-Yellow Garden Spider



사진 김완병



사진 김완병

십자수호랑이

The Cross-stitch of a Tiger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상징이며. 위엄과 용맹성이 뛰어난 동물이다. 호랑이의 기운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상과 접해왔으며, 그 중의 하나가 십자수이다. 한 때 호랑이 표구, 족자, 서각 작품 등도 유행한 적이 있으며, 지금도 호랑이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작가도 있다. 과거 1960~80년대에는 집집마다 십자수호랑이가 걸려 있을 정도였으나, 호랑이가 사라져가면서 그 명성이 잊혀져가고 있다.

십자수호랑이
79.9 x 71.8cm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호랑이 서각품
30x50cm
소장 문창민

“金剛寶劍最威雄 一喝能摧外道鋒 遍界乾坤皆失色 須彌倒卓半空中”

“금강보검은 가장 위엄이 있으니, 일갈로 그릇된 가르침의 선봉을 꺾어버리고,
삼천세계가 그 빛을 잃고 수미산이 공중에 거꾸로 섰다”
번역 김태희

호랑이를 사랑한 여우

A Fox Who Loved a Tiger

야생에서 호랑이가 장가가거나 교미하는 장면을 보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맑게 갠 날 그것도 해가 있는 상태에서 비가 내리니, 얼마나 황당할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호랑이가 장가가는 날'이라 한다. 같은 의미로 '여우가 시집가는 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호랑이 대신에 여우일까. 전해오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용맹스런 호랑이처럼 왕이 되고 싶은 욕심에, 잔꾀를 낸 여우가 호랑이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날 비가 내립니다. 진짜 여우를 짝사랑했던 구름이 호랑이에게 시집가는 여우를 보고 눈물을 흘린 거죠. 하지만 구름이 여우의 행복을 위해 웃어주자, 비가 그치고 화창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장가가는 날'이나 '여우가 시집가는 날'은 둘 다 맑은 하늘에 갑자기 비가 내리는 때거나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알미운 날씨 상황일 때를 말합니다. 사실, 제주에는 호랑이도 여우도 없습니다.

동화 속 호랑이와 여우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맑게 갠 오후에 떠오르는 무지개
사진 김성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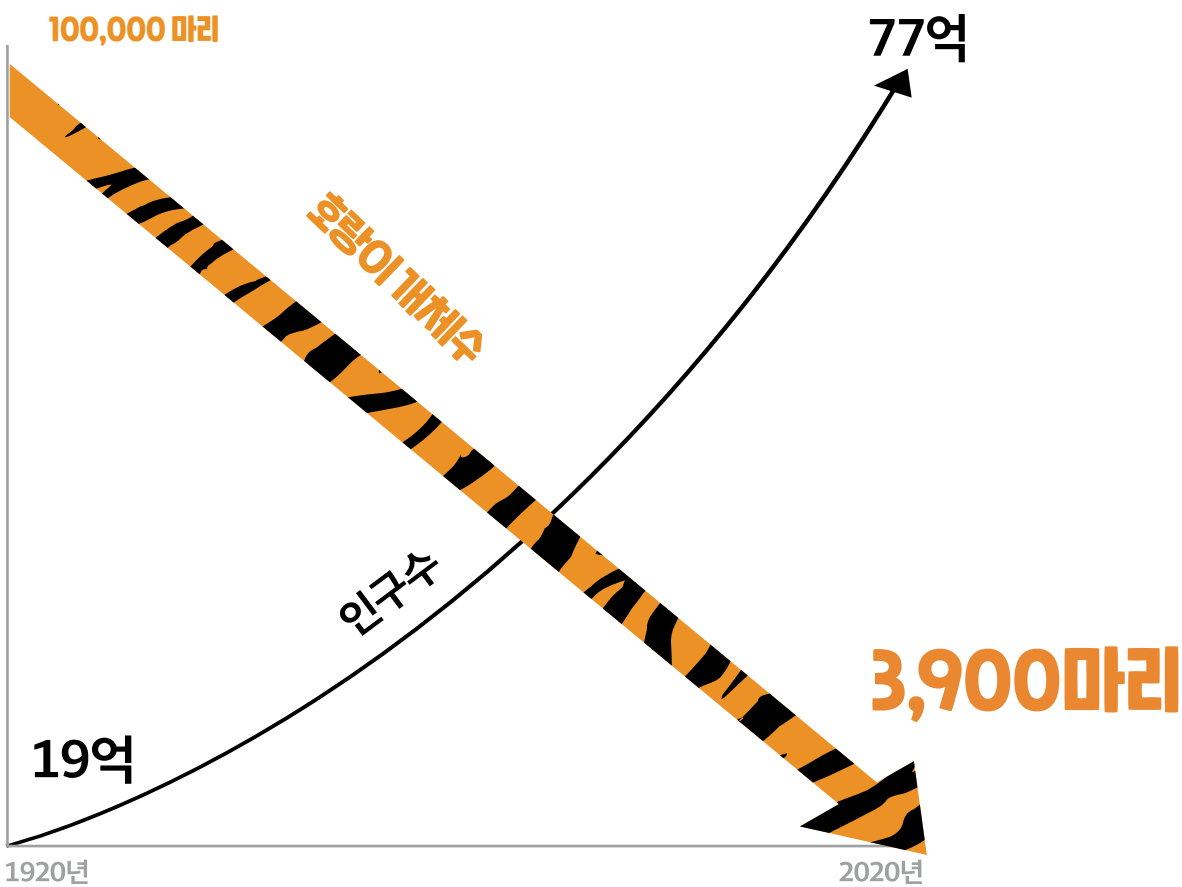
그림 강주희 작가

호랑이는 왜 멸종위기종이 되었나요?

Why Did Tigers Become Endangered?

백두산호랑이는 다른 호랑이에 비해 모피나 털색이 우수하여, 호피나 약재로 남획되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해수구제(害獸驅除) 정책을 빌미로 호랑이를 비롯하여 늑대와 표범을 마구 잡아들였다. 또한 호랑이의 서식지인 숲이 경작지나 인공시설물로 변하면서 숲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은 일부 박물관이나 동물원에서나 볼 수 정도이며, 한반도에서는 백두산 일대를 제외하고는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흑룡강성의 동북호림원이나 길림성의 장백산 호림원에서는 호랑이를 인공 사육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공원이나 백두대간수목원 (경북 봉화군) 사육장에서 관람할 수 있다. 호랑이는 야생의 경의로움과 용맹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아 있다. 그러나 야생의 호랑이가 한반도에서 사라지면서, 이제 한국호랑이는 인공사육기술이나 유전학적 복제기술에 의해 그 생명을 유지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호랑이와 인구의 변화



출처: www.worldwildlife.org

독일에는 세계 '호랑이 족보'가 있다.

[애니멀피플] 노정래의 동물원 탐험

새끼 폐사율 높을수록 많이 낳아...호랑이는 많을 때 7마리 출산
라이프짜히동물원이 족보 관리, 나중에 순종 등록 취소되는 일도

동물원에서 인기 있는 동물 중 하나가 호랑이다. 동물원의 상징이기도 하다. 동물원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은 호랑이를 보고 싶어 한다. 특히 시골에서 올라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동물원에 와서 다른 것은 못 봐도 호랑이는 보고 가야 한다고 하신다. 특히 호랑이는 한국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동물이다. 88년 서울올림픽 때 마스코트였다. 다가오는 평창 겨울올림픽에도 '수호랑'이란 마스코트로 또 만날 것이다. 이 때문에 동물원도 사설 끝 부분이나 입구에서 한참 뒤쪽에 호랑이를 뒀다. 호랑이를 보러 가면서 다른 동물도 보게 하려는 전략이다.

동물원에만 남은 남중국호랑이

세계적으로 호랑이는 원래 9종이었으나 3종(발리호랑이, 자바호랑이, 카스피호랑이)은 안타깝게도 20세기에 멸종했다(10종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1종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멸종했는데 그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발리호랑이는 1937년 9월27일, 자바 호랑이와 카스피호랑이는 1970년대 중반에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인구 증가로 산림이 택지나 농토로 바뀌면서 서식지가 급격히 감소했고, 이어 먹이사슬이 파괴되면서 멸종됐을 것으로 본다. 호랑이 모피와 뼈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멸종에 한 몫 거들기도 했다. 현재 6종(벵갈·시베리아·수마트라·말레이시아·인도차이나·남중국)이 생존해있다. 그중 남중국호랑이는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다. 야생에는 서식하는 호랑이는 5종뿐이다.

호랑이 수명은 얼마나 될까? 아쉽게도 야생에 사는 호랑이의 수명이 정확히 밝혀진 적은 없다. 국내 동물원은 벵갈호랑이 또는 시베리아호랑이 두 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시베리아호랑이다. 백두산 호랑이도 여기에 속한다. 2016년까지 독일 라이프짜히동물원 족보에 등록된 시베리아호랑이는 6300마리다. 현재까지 그중 2300마리가 폐사했다. 족보에 따르면, 태어나 몇몇 이후 폐사한 개체의 평균 나이는 7년2개월이다. 예상보다 짧다. 1995년 미국 매디슨동물원에서 폐사한 개체가 22살로 제일 오래 살았다.

어릴 때 폐사율이 높은 종일수록 한 배에 여러 마리 낳는다. 어릴 때 죽을 것을 대비해서 그렇다. 호랑이도 한 배에 작게는 2마리, 많게는 7마리까지 낳는다. 성체로 자라지 못하고 폐사하는 개체가 많다는 뜻이다. 다른 예로서 참개구리는 한 배에 알을 4000~5000개 낳는다. 대부분 죽기 때문에 왕창 낳아도 그중 한두 마리 밖에 살리지 못하는데, 이와 같은 이치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에 호랑이 수명이 20~26년으로 알려져있다. 어릴 때 폐사한 개체를 제외하고 오래 사는 개체 중 몇 살까지 사는지 봤을 때 20~26년으로 어림잡아 말하는 것으로 본다.

순종인 줄 알고 기증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동물원에서 살았던 호랑이의 평균 수명은? 그동안 서울동물원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호랑이의 평균 나이는 11살이다. 물론 그보다 더 오래 산 호랑이도 있었다. 세계 각지의 동물원에 살았던 시베리아호랑이보다 서울동물원 호랑이들이 장수했다.

호랑이는 국제멸종위기종(CITES)으로 상업적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사람들 주민등록 번호처럼 개체마다 고유 번호가 있다.

새끼가 태어나면 독일 라이프짜히동물원 호랑이관리팀에 출생 신고를 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출생 신고가 들어오면 부모가 누구인지, 잡종인지 아닌지 등 서류를 확인해 순종일 경우 등록해준다. 말하자면, '세계 호랑이 족보'다. 국내 동물원에 보유 중인 호랑이 중 족보에 올라있는 개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개체도 있다.

서울동물원이 창경원에서 현재의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이사 올 때, 모기업체에서 기념으로 족보에 오른 호랑이를 외국에서 도입해 기증한 바 있었다. 몇 년 전에 알게 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호랑이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족보에 있었지만 조상 중에서 누군가가 순종이 아니었다. 그 후손을 데려갔던 다른 나라도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바로잡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독일 라이프짜히동물원 호랑이 관리팀은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잡길 권고했다. 사실 그 후손을 보유했던 동물원은 아무 잘못이 없다. 족보를 믿고 번식시켰을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는 유전자 분석 기술이 없던 시절이라 호랑이 등록 업무를 시작하던 초창기에 순종 검증 절차가 없었을 것이다. 사진으로 봐서 뚜렷이 구별되지 않고 그놈이 그놈이었을 것이다.

호랑이 살아남게 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일부 호랑이가 순종이 아니라고 호들갑스럽게 유난을 떨 필요 없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이 개체들은 번식을 중단하고 생물학적 수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순종만 새끼를 낳게 하면 된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순종 호랑이의 대를 잇기 위해 특정 동물원에서 많은 개체를 보유할 필요도 없다. 여러 동물원에서 순종을 확보해 근친번식이 되지 않게 계획적으로 번식해야 한다. 유전적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국내외 다른 동물원에 있는 개체와 교환도 해야 한다. 동물원 기능을 수행하려면 이런 일을 소홀히 해서 안 되며 예산을 아껴서도 안 된다. 그리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지거나 서울동물원 후손을 데려가기도 했다. 동물원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건강한 동물원을 유지하려면 향후 몇 년간만이라도 동물구입비와 교환 때 필요한 비용을 넉넉하게 책정해 줘야 한다. 최근에 생태동물원을 만들겠다고 발벗고 나선 전주동물원부터 앞장서서 나갈 것으로 기대해 본다.

종마다 다르지만 동물원에서 사는 개체들이 야생에서 사는 것 보다 약 20%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원에서 정기검진으로 건강 검진 받고, 배고픔으로부터 해방되고, 천적으로부터 안전함이 그 이유로 본다. 올해 여름 서울동물원에 살던 호랑이 '크레인'이 1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단지 수명으로만 볼 경우 크레인을 사람으로 치면 노인이며 시베리아호랑이 전체 족보 자료와 비교해도 천수를 누린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에 야생에서 태어났더라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또다른 행복을 맛볼 수 있었을 텐데 이 점이 아쉽다.

노정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 이 원고는 2017.12.14. 한겨레신문에 연재한 내용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호랑이 그리고 숲

Covid-19, Tigers, and Forests

2019년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사람들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세계 경제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야생동물 사이에서 전염되는 병원체로 알려지면서, 박쥐, 낙타, 호랑이와 같은 야생동물이 비호감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SARS-CoV-2(Corona19의 정식 명칭)에 감염된 인간이 야생동물에게 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도 있을까. 특히 인간과 비슷한 유전자를 지니고 있고 접촉할 기회가 많은 고릴라, 침팬지와 오랑우탄, 긴팔원숭이 등의 영장류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호랑이도 포유동물이다. 따라서 인간 중심의 문명 이기주의는 이제 야생동물과 공생과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호랑이와 박쥐, 그들의 서식지인 숲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더 이상 호랑이가 인간에 의해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



사진 박용국

시베리아호랑이
Panthera tigris altaica / Siberian Tiger



사진 오승목

오렌지윗수염박쥐(붉은박쥐)
Myotis formosus / Copper-winged Bat



사진 김완병

도로를 횡단하는 노루
Capreolus pygargus / Roe Deer



참고문헌(도록)

高玮, 盛连喜. 2006. 백두산 동물도감(한국번역판). 일진사.
具诚, 高玮, 王魁颐. 1997. 吉林省生物种类与分布. 东北师范大学出版社.
국립제주박물관. 2010. 어흥 호랑이 특별전 도록.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吉林省长白山自然保护区管理局科研所. 1983. 长白山自然保护区科管论文集. 边人民出版社.
김영자. 2005. 산신도(山神圖)에 표현된 산신(山神)의 유형. 한국민속학 41: 187-223.
朴龙国, 王绍先, 朴正吉. 2013. 长白山兽类. 吉林出版集团. 吉林科学技术出版社.
엄소연. 2004. 조선시대 호랑이 민화 동물 상징 및 그 사회적 맥락. 조형예술학연구 6: 33-59. 한국조형예술학회.
오창명. 2014. 탐라순력도 탐색. 제주발전연구원.
王绍先. 2007. 长白山保护开发区生物资源. 辽宁科学技术出版社.
정병모. 2011. 민화 용호도의 도상적 연원과 변모양상. 강좌미술사 37호 259-282.
정세호, 오장근, 김완병. 2006. 한라산총서 X -한라산의 동물. 제주도. 한라생태 문화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14. 제주민화 특별전 도록.
陈霞, 王绍先, 王振国. 2012. 长白山保护区开发区 生物多样性保护与可持续发展. 吉林出版社.
한상훈. 2000. 韓半島의 自然과 野生動物. 韓國自然環境科學情報研究中心.
Jo Y. S., Baccus J. T. and Koprowski J. L. 2018. MAMMALS OF KOREA.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한라산-백두산의 동물자원¹⁾ (조류를 중심으로)

김완병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1. 한라산 현황

제주도를 상징하는 한라산(1,950m)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일어난 신생대 제4기(약 200만 년전부터 현재까지) 화산활동을 대표하는 화산이다. 또한 한라산은 제주도의 중심에 위치한 아스피테(Aspite)형 순상화산체로서, 화구호와 영실기암의 주상절리, 조면암뚝, 용암대지 등 다양한 화산학적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수많은 기생화산의 분포는 독특한 화산지형의 형성사를 간직하고 있다. 한라산 정상부 백록담 분화구는 깊이 108m, 둘레 1,720m, 면적 210,000m²의 오목한 지형의 화구호를 이룬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은 순상화산의 원형이 풍화나 침식을 거의 받지 않은 채로 보존되어 있으며, 1966년에 천연기념물(제182호) 및 1970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153.386km²)되어 관리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2002년), 세계자연유산(2007년) 세계지질공원(2010년)으로 각각 지정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라산의 생물학적, 생태학적 가치는 높게 평가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리적 위치와 해발고도, 지세 등의 영향으로 아열대에서 아한대 기후대까지 수직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 제주도에 자생하는 식물의 수직분포대는 해안에서 한라산 정상까지 고도에 따라 해안식물대(0~200m), 초지대(200~600m), 상록활엽수림대(0~800m), 낙엽활엽수림대(600~1,400), 침엽수림대(1,400~1,800m), 관목림대(1,600~1,950m)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2. 백두산 현황

백두산(중국어명 장백산)은 중국 동북부와 한반도의 경계를 이루며, 중국 길림성 연변(延邊)과 통화(通化) 그리고 북한의 함경북도 혜산시에 걸쳐 있다. 지리적으로는 북위 41°58'~42°6', 동경 127°56'~128°06'이고, 최고봉인 장군봉(북한)은 해발 2,746m이며, 중국에 위치한 최고봉은 백운봉은 해발 2,691m이다.

장백산은 온대지구에 속하며, 기후의 특성은 강우량이 풍부하며, 연평균기온은 낮은 편이다.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으며, 여름철과 겨울철의 온도차가 현저하다. 해발이 높아짐에 따라 기후 요소의 현저한 차이가 생긴다. 그와 연결된 토양과 식물의 분포는 매우 뚜렷한 수직 분포대를 보여준다. 해발 고도에 따라 구분해보면, 산지침엽활엽혼효림대(해발 600~1,100m지역), 산지침엽수림대(해발 1,100~1,800m 지역), 산지약화(사스래나무)림대(해발 1,800~2,100m 지역), 산지초원대

(해발 2,100~2,746m)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장백산 산림 전경과 고산 지역



백두산 천지(북파 코스)

3. 한라산 조류의 연구사

한라산의 조류가 학술적으로 알려진 것은 Ogilvie-Grant(1909)가 “Bulletin of the British Ornithologist’s Club”에서 당시 Bedford 공작이 1905년 미국인 앤더슨이 한라산에서 채집한 동고비 *Sitta europaea*에 대해 동정자의 이름을 따서 *Sitta berfordi* 라는 신종으로 발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한라산을 포함한 제주도의 조류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한 연구(黒田長禮 & 森爲三, 1918; 森爲三, 1927)와 몇몇 서양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다가(Austin, 1948),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원홍구 박사(1931)가 일본동물학잡지에 “濟州島に於けるヤイロチョウの習性に就いて”란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는 한라산에서 번식하는 조류에 대한 습성을 보고한 최초의 번식생태 연구보고서이다.

광복 이후에 한라산 국립공원의 조류 연구로는 한라산 및 홍도의 조류(원병오, 1968), A Survey of birds in Jeju(Quelpart) Island(Park and Won, 1980), 한라산 산림조류의 군집구조(박행신, 1984), 한라산학술종합조사 보고서(박행신과 원병오, 1985), 한라산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오장근, 2002; 오홍식 등, 2002; 백운기 등, 2003; 김완병 등, 2013)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유산 본부에서 중점적으로 학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4. 장백산 조류의 연구사

중국 정부는 장백산의 조류 조사에 대하여 195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당시 동북사범대학 생물학부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100여 종의 100여 표본을 채집하였다. 1960년에 장백산은 자연보호구관리국을 건립한 후, 장백산의 조류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1986년에 개관한 장백산자연박물관에서 조류생태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장백산 조류의 수직분포에 대해서는 동봉(1960) 142종, 조정개와 고수(1980) 194종 그리고 조정개 등(1984) 250종을 각각 발표하였으며, 조정개(1984)는 장백산에서 번식하는 종은 158종(여름철

1) 이 글은 한라산-백두산 탐사지원 사업(2018, 주관: 한라일보사와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후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실린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필자는 2018년 8월 백두산 일대를 탐사하였다.

새 128종, 텃새 30종)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북한을 통한 학술조사는 원홍구 박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고, 동유럽의 전문가들이 방문하여 남긴 간헐적인 보고서가 있을 뿐이다.

5. 동물자원의 분포

한라산 일대의 동물상을 보면, 포유류 44종, 조류 418종(바다새 포함), 양서류 7종, 파충류 14종(바다파충류 포함), 어류 637종(바다어류 포함), 곤충류 4,362종이 서식하고 있다(표 1). 한라산 식생을 중심으로 한 서식지별 분포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상록활엽수림대: 난대성 상록수가 우점하는 해발 700~800m 구간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에는 돈내코 등반 코스 일부 지역과 계곡 산림이 해당된다. 주요 종으로는 직박구리, 동박새, 박새, 곤줄박이, 방울새, 오목눈이, 큰부리까마귀, 멧비둘기, 굴뚝새, 휘파람새 등이다. 특히 동양구에 속하는 종으로 직박구리와 동박새는 난대성 식생분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2) 낙엽활엽수림대: 한라산내에 주요 계곡을 벗어난 지역으로 어리목, 영실, 성판악, 돈내코 상류, 한천 상류, 물장울, 어승생악, 사라오름 등으로 해발 800~1,400m에 해당된다. 주요 종으로는 직박구리, 동박새, 박새, 큰부리까마귀, 방울새 등이며 희귀종으로는 천연기념물인 소쩍새, 큰소쩍새, 참매, 붉은배새매, 새매, 황조롱이, 매, 팔색조, 긴꼬리딱새 등이 확인된다. 이 구간은 큰오색딱따구리, 박새, 곤줄박이, 흰배지빠귀, 섬휘파람새, 굴뚝새, 흰눈썹황금새, 큰유리새 등 번식조류가 많은데, 이는 낙엽활엽수림대가 다른 서식지보다는 번식에 필요한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침엽수림대 및 관목림: 해발 1,400m이상인 구간으로 영실 소나무 군락, 구상나무군락, 성판악 진달래밭, 윗세오름 및 왕관릉 일대 그리고 백록담 분화구도 여기에 속한다. 주요 종으로는 큰부리까마귀, 박새, 굴뚝새, 곤줄박이, 진박새 등이며 검독수리, 황조롱이, 매 등의 맹금류가 관찰된다.

중국 장백산 일대의 동물상을 보면, 조류 285종 포유류 66종, 양서류 13종, 파충류 19종, 어류 129종, 곤충류 2,957종이 서식하고 있다(표 1). 희귀한 종으로는 호랑이, 반달가슴곰, 대륙사슴, 스라소니, 호사비오리, 원앙, 두루미, 황새, 검독수리 등이 분포하고 있다. 한라산에 비해 대형 포유류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장백산 천지에서 발원한 이도백하, 송강하, 금강, 압록강, 두만강 수계에는 칠성장어, 열목어, 그리 등과 같은 담수성 어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장백산자연박물관에는 진귀한 동물표본과 생태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장백산 일대의 동물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다.

제주도와 장백산은 중국 동부해안과 한반도 서해안을 거치는 철새들의 이동경로 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텃새를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철새들이 많다. 또한 한라산과 백두산의 조류상은 고도에 따른 산림 생태계 차이로 인하여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종다양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저지대에서 고산지대까지 분포하는 종은 큰부리까마귀, 칼새, 횡동새, 노랑할미새, 굴뚝새 등이 우점하며, 백두산 천지 일대에서 번식하는 바위종다리, 호사비오리 등은 제주도까지 날아와 월동한다. 제주도에 희귀하게 도래하는 귀제비, 흰턱제비 등은 장백산 해발 900m 이하의 인간 주변에서 집단으로 번식하며, 장백산에 분포하는 동고비, 북방쇠박새, 멧닭, 들꿩, 잣까마귀 등은 한라산에 서식하지 않는 북방계열에 속하는 종이다.

구 분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곤충류
한라산	44	422	14	7	637	4,362
백두산	66	285	17	13	129	2,957

표 1. 한라산과 백두산의 동물 종수 분포 현황

한편, 중국 장백산 분포하는 동물자원 중에서 국가급보호종은 I 급 9종, 2급 40종으로 모두 49종이다(陳霞 外, 2012) 분류군별로 보면, 포유류는 13종, 조류는 45종, 곤충류는 1종이다(표 2).



장백산자연박물관



표범과 스라소니(소장 장백산자연박물관)



늑대와 불곰(소장 장백산자연박물관)



붉은사슴(소장 장백산자연박물관)



두루미류와 오리류(소장 장백산자연박물관)



무당개구리(길림성 집안시 광개토왕릉)



호랑나비(길림성 용정시 비암산)



산제비나비(백두산 정상)



산굴뚝나비(한라산 정상)

No.	구분	학 명	중국명	한국명	중국 보호 등급	한국 등급	한반도 분포	제주도 분포
1	포유류	<i>Cuon alpinus</i>	豺	승냥이	Ⅱ		○	
2	포유류	<i>Ursus arctos</i>	棕熊	불곰	Ⅱ		○	절멸됨
3	포유류	<i>Ursus thibetanus</i>	黑熊	반달가슴곰	Ⅱ	Ⅰ	○	
4	포유류	<i>Martes zibellina</i>	紫貂	검은담비	Ⅰ	Ⅰ	○	
5	포유류	<i>Martes flavigula</i>	黄喉貂, 青鼬	담비	Ⅱ	Ⅰ	○	
6	포유류	<i>Lutra lutra</i>	欧亚水獭, 水獭	수달	Ⅱ	Ⅰ	○	
7	포유류	<i>Lynx lynx</i>	欧亚猞猁	스라소니	Ⅱ	Ⅰ	○	
8	포유류	<i>Panthera pardus</i>	豹	표범	Ⅰ	Ⅰ	○	
9	포유류	<i>Panthera tigris</i>	東北虎	호랑이	Ⅰ	Ⅰ	○	
10	포유류	<i>Moschus moschiferus</i>	原麝	사향노루	Ⅰ	Ⅰ	○	
11	포유류	<i>Cervus nippon</i>	梅花鹿	대륙사슴	Ⅰ	Ⅰ	○	절멸됨
12	포유류	<i>Cervus elaphus</i>	马鹿	붉은사슴	Ⅱ		○	
13	포유류	<i>Naemorhedus goral</i>	斑羚, 青中	산양	Ⅱ	Ⅰ	○	
14	조류	<i>Ciconia nigra</i>	黑鹤	먹황새	Ⅰ	Ⅰ	○	○
15	조류	<i>Cygnus cygnus</i>	大天鹅	큰고니	Ⅱ	Ⅱ	○	○
16	조류	<i>Aix galericulata</i>	鸳鸯	원앙	Ⅱ		○	○
17	조류	<i>Mergus squamatus</i>	中华秋沙鸭	호사비오리	Ⅰ	Ⅰ	○	○
18	조류	<i>Pernis ptilorhynchus</i>	凤头蜂鹰, 蜂鹰	벌매	Ⅱ	Ⅱ	○	○
19	조류	<i>Milvus migrans</i>	黑鸢	솔개	Ⅱ	Ⅱ	○	○
20	조류	<i>Accipiter gentilis</i>	苍鹰	참매	Ⅱ	Ⅱ	○	○
21	조류	<i>Accipiter nisus</i>	雀鹰	새매	Ⅱ	Ⅱ	○	○
22	조류	<i>Accipiter virgatus</i>	松雀鹰	한국미기록종 (매목)	Ⅱ			
23	조류	<i>Buteo hemilasius</i>	大鵟	큰말뚝가리	Ⅱ	Ⅱ	○	○
24	조류	<i>Buteo buteo</i>	普通鵟	말뚝가리	Ⅱ		○	○
25	조류	<i>Butastur indicus</i>	灰脸鵟鹰	왕새매	Ⅱ		○	○
26	조류	<i>Aquila chrysaetos</i>	金雕	검독수리	Ⅰ	Ⅰ	○	○
27	조류	<i>Aquila clanga</i>	乌雕	항라머리검독수리	Ⅱ	Ⅱ	○	○
28	조류	<i>Circus cyaneus</i>	白尾鸢	잣빛개구리매	Ⅱ	Ⅱ	○	○
29	조류	<i>Circus melanoleucos</i>	鵟鸢	알락개구리매	Ⅱ	Ⅱ	○	○
30	조류	<i>Pandion haliaetus</i>	鸢	물수리	Ⅱ	Ⅱ	○	○
31	조류	<i>Aegypius monachus</i>	秃鹫	독수리	Ⅱ	Ⅱ	○	○
32	조류	<i>Falco subbuteo</i>	燕隼	새호리기	Ⅱ	Ⅱ	○	○
33	조류	<i>Falco columbarius</i>	灰背隼	쇠황조롱이	Ⅱ		○	○
34	조류	<i>Falco amurensis</i>	红脚隼	비둘기조롱이	Ⅱ		○	○
35	조류	<i>Falco naumanni</i>	黄爪隼	애기황조롱이	Ⅱ		○	
36	조류	<i>Falco tinnunculus</i>	红隼	황조롱이	Ⅱ		○	○
37	조류	<i>Lyrurus tetrix</i>	黑琴鸡	멧닭	Ⅱ		○	
38	조류	<i>Tetrates bonasia</i>	花尾榛鸡	들꿩	Ⅱ		○	
39	조류	<i>Anthropoides virgo</i>	蓑羽鹤	쇠재두루미	Ⅱ		○	
40	조류	<i>Otus sunia</i>	紅角鸮	소쩍새	Ⅱ		○	○
41	조류	<i>Otus bakkamoena</i>	领角鸮	큰소쩍새	Ⅱ		○	○
42	조류	<i>Bubo bubo</i>	雕鸮	수리부엉이	Ⅱ	Ⅱ	○	○
43	조류	<i>Ketupa zeylonensis</i>	褐鱼鸮	한국미기록종 (올빼미목)	Ⅱ			
44	조류	<i>Ninox scutulata</i>	鹰鸮	솔부엉이	Ⅱ		○	○
45	조류	<i>Strix uralensis</i>	长尾林鸮	긴점박이올빼미	Ⅱ	Ⅱ		
46	조류	<i>Strix nebulosa</i>	乌林鸮	한국미기록종 (올빼미목)	Ⅱ			
47	조류	<i>Asio otus</i>	长耳鸮	참부엉이	Ⅱ		○	○
48	조류	<i>Asio flammeus</i>	短耳鸮	쇠부엉이	Ⅱ		○	○
49	곤충류	<i>Gallosiana sinensis</i>	中华蛭蟊	한국미기록종 (귀뚜라미붙이목)	Ⅰ			
계					Ⅰ :9 Ⅱ :40	Ⅰ :13 Ⅱ :14	45	27

표 2. 장백산보호구에 분포하는 희귀 동물 현황



호랑이

6. 주요 동물자원

6-1. 호랑이

호랑이 *Panthera tigris altaica* / 영명 Siberian Tiger, Korean Tiger / 중명 東北虎

동물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에 속하는 호랑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국경지대에 극히 제한되 어 분포하는 종으로, 지역에 따라 ‘동북호랑이’, ‘시베리아호랑이’, ‘아무르호랑이’, ‘한국호랑이’, ‘백두산호랑이’이라 부르기도 한다. 호랑이는 세계적으로 지역에 따라 벵갈호랑이, 아모이호랑이 등 몇몇 아종으로 분류하며, 이중 동북호랑이가 체격이 가장 크고, 용맹스러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에 분포하는 호랑이는 수십에서 수백 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IUCN에서 적색자로 위기종으로 등록될 정도로 국가차원에서 시급히 보호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구상에 서 사라질 위기에 있다.

과거 호피, 약재로 남획되다보니, 지금은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이며 야생에서는 확인이 쉽지 않다. 중국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북경자연박물관, 천진자연박물관, 장백산자연박물관에는 모두 호랑이 박제표본을 소장하고 있으며, 흑룡강성 동북호림원과 길림성 장백산호림원에서는 호랑이를 인공 사육하여 일반인에게 공개 관람시키고 있다. 그만큼 동북호랑이는 일반인들의 관심 을 끌 정도로 야생의 경외로움과 용맹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아 있다. 그러나 야생의 호랑이가 한반도에서 사라지면서, 이제 한국호랑이는 인공사육기술이 나 유적학적 복제기술에 의해 그 생명을 유지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최근 중국 길림성 훈춘임업국에서는 길림성과 흑룡강 일대의 국경 접경을 중심으로 호랑이 국가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탐사단이 방문한 훈춘시 방천마을에 있는 룡호석각에는 동북호생태체험관에서 호랑이 표본을 만날 수 있었으며, 전망대에 올라가면 북쪽으로는 중국호랑이공원, 동북 쪽으로 러시아, 서남쪽으로 두만강 너머에 북한의 나선시가 한 눈에 들어온다. 전망대에서 두만강 하류까지는 9.8km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난 2018년 5월 16일에 두만강 하류에 위치한 나선철새 도래지 보호지역이 람사로 습지로 등록되었다.



호랑이
(이도백하 장백산 호림원)

호랑이 표본
(소장 장백산자연박물관)

호랑이 표본(소장 룡호석각)

6-2. 바위종다리

바위종다리 *Prunrella collaris* / 영명 Alpine Accentor / 중명 领岩鸫

종다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머리, 목, 가슴이 진한 회색이어서 확연히 구분된다. 주로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백두산에서 번식하고 겨울에는 한라산까지 내려온다. 산지의 바위에 앉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천지와 백록담 분화구 안팎에서 의외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필자는 2003년 8월 백두산 천지내 암자와 초지에서 10여 마리를 관찰하였으며, 워낙 바람이 강하여 높게 날지 못하고 단거리 비행을 반복하면서 먹이를 찾고 있었다. 제주에서는 지난 1968년 관찰기록이 있다가 2001년 한라산 정상 부근에서 한라산연구소 오장근 박사에 의 해 9개체를 확인한 바 있다.



바위종다리
(2004. 8/ 백두산 천지)



바위종다리 서식지
(백두산 고산지대)



바위종다리 월동지
(한라산 백록담)

6-3. 제비와 귀제비

제비 *Hirundo rustica Barn* / 영명 Swallow / 중명 家燕

귀제비 *Hirundo daurica* / 영명 Red-rumped Swallow / 중명 金腰燕

제주에서 볼 수 있는 제비류는 제비, 귀제비, 흰털발제비, 흰턱제비, 갈색제비 등 5종이며, 이중 제비와 귀제비가 번식하며 나머지는 봄과 가을 이동시기에 관찰된다. 해안저지대에서 산정 습지오름을 비롯하여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 분화구까지 관찰된다. 백두산에서는 제비, 귀제비, 흰턱제비, 갈색제비 등 4종이 보고되었으며, 제비가 가장 흔한 편이며, 백두산 내두 마을에서 귀제비와 흰턱제비가 무리를 이루어 지내고 있었다.



귀제비 무리(백두산 내두마을)



귀제비(백두산 내두마을)



흰턱제비(백두산 내두마을)



귀제비 둥지(백두산 내두마을)



귀제비 둥지(장백산 매표소)



제비(제주도)

6-4. 박새와 쇠박새

박새 *Parus major* / 영명 Great / 중명 大山雀

쇠박새 *Parus palustris* / 영명 Marsh Tit / 중명 沼泽山雀

참새목 박새과에 속하며, 제주에서는 박새, 곤줄박이, 진박새, 노랑배진박새 등 4종이 보고되었으며, 백두산에서는 박새, 진박새, 쇠박새, 북방쇠박새 등 4종이 관찰된다. 백두산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쇠박새와 북방쇠박새는 한라산에는 분포하지 않는다. 박새는 저지대에서 고지대에 이르기까지 그 분포 범위가 넓으며, 남한과 북한에 비교적 흔한 곤줄박이는 백두산과 개마공원의 고산지대에는 분포하지 않는다. 박새류의 먹이는 주로 곤충류, 거미류, 나무열매이다. 여름에는 주로 곤충류를 잡아먹기 때문에 먹이획득에 어려움이 없으나 겨울에는 먹이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한라산과 백두산을 계절에 따라 수직이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박새
(제주도/사진 김영호)



쇠박새
(전남 순천시/사진 김인규)



곤줄박이
(제주도/사진 김태욱)

6-5. 동고비

동고비 *Sitta europaea bedfordi* / 영명 Eurasian Eurasian Nuthatch / 중명 普通鵐

1909년 2월 17일, 말콤 플레이페어 앤더슨(Malcolm Playfair Anderson)이 1905년 9월 11일 제주도에서 채집한 동고비 수컷 1마리를 보고, 베드포드(Bedford)의 이름을 따서 *Sitta bedfordi* 이라는 신종으로 발표하였다. 이것은 제주도 조류에 대한 현재까지 학술적으로 기록된 최초의 보고이다. 이 종에 대해 오길비에 그랜트(Ogilvie-Grant)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Sitta amurensis*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으나, 윗부분이 어두운 회색을 띄며 아래 가슴과 배부분은 어두운 적갈색을 띠었다. 부리는 아주 육중하고 조금 긴 편이다. 날개 길이는 78~81mm정도이다. 이 새는 한국의 제주도에서 서식한다고 했으며 관찰기록에 의하면 8~9월에 모두 4마리의 수컷 성조를 보았는데, 모두 털갈이 중이었다”. 이 표본은 영국자연사박물관에서 1907년 12월 17일 모식표본으로 등록시켜 소장하고 있으며, 1909년 *Sitta europaea bedfordi* Ogilvie Grant 아종으로 재분류되었다.

이 종은 남한에서 발간한 조선동물명(1948, 조선생물학회)에서 “붉은배동고비 *Sitta europaea berdordi*”라 명명되었고 아무르동고비 *Sitta europaea amurensis*, 동고비 *Sitta europaea homdoensis* 3아종으로 분류하였다. 원홍구 박사는 조선조류지 3(1965, 과학원출판사)에서 제주동고비라 명명하였으며, “동고비와 비슷하나 동고비보다 등의 색깔이 약간 진하고 눈썹과 앞이마의 흐린 백색이 더 적으며 가슴 아래는 갈색이 많다. 그러므로 일명 ‘붉은배동고비’라고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강영선 박사는 한국동물도감 <조류>편(1962)에서 한국명으로 ‘붉은배동고비’ 그리고 영어명으로는 Quelpart Nuthatch 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그는 동고비과에 붉은배동고비 *Sitta europaea bedfordi* 외에 아물동고비 *Sitta europaea amurensis*, 동고비 *Sitta europaea hondoensis*, 큰한국동고비 *Sitta canadensis villosa*, 한국동고비 *Sitta canadensis corea* 등 모두 5아종으로 세분화하여 발표하였다. 한편 원병오 박사는 1981년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에서 한국의 동고비과를 동고비 *Sitta europaea amurensis*와 쇠동고비 *Sitta villosa villosa* 두 종으로 기재하면서 전자는 한국의 흔한 텃새이며 후자는 백두산에서는 흔한 텃새이지만 한반도 중부 이남에는 매우 드물다고 하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오길비에 그랜트(Ogilvie-Grant)의 기록만을 인용하였을 뿐, 붉은배동고비(제주동고비)에 대한 관찰기록은 제시하지 않았다. 클렌츠(Clemnts, 2000)는 최근판 Birds of the World: A Checklist에서, 한국에는 동고비류가 *Sitta europaea*, *Sitta villosa* 두 종이 분포한다고 했는데, 붉은배동고비 *Sitta europaea bedfordi*는 아종으로 한국의 제주도에만 서식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과거 1910년에서 1920년대 당시 한국에서 활동한 모미야마, 구로다, 모리, 도다 등 일본인 학자들은 제주도에서 동고비를 채집하거나 관찰하지 못하였다. 당시 모미야마는 제주동고비를 확인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1927년에 그는 다가하시라는 조류수집가가 1926년 4월 26일 제주도의 세 번째 여행에서 동고비 암컷 성조 1마리를 포획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 후 시게다 시다, 미야찌 등도 제주도에서 채집활동을 하였지만 제주동고비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또한 1950년 이후의 원병오, 박행신 박사 등 국내 학자들에 의해서도 관찰된 사례는 없었으며 원병오(1968)는 한라산 및 홍도 학술조사 보고서에서도 기 발표한 4회의 기록 [4♂♂ ad. (O-Grant), ♀ ad.(靑山), Apr. 1926. Apr. 1929(淸樓)] 만을 보고하였다.

동고비는 서유럽에서 러시아까지 구북구 전역에 분포하는 종이지만, 이동성이 적어서 지역에 따른 독립된 개체군을 유지하고 있다. 클렌츠(2000)는 붉은배동고비 *Sitta europaea bedfordi*를 포함하여 18아종이 분포하며, 한국에는 분포하는 아종은 *Sitta europaea amurensis*로 러시아, 중국, 일본 혼슈에 분포하는 공통 아종으로 보고 있다. 대륙에 분포하는 집단은 계절에 따라 지역 간 이동이 일어날 수 있으나, 제주의 경우는 섬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대륙의 이동 집단이 제주도로



동고비 표본
(소창 영국자연사박물관)



동고비 표본
(기증 장백산자연박물관)



동고비
(강원도 태백시/사진 김인규)

6-6. 큰오색딱따구리

큰오색딱따구리 *Dendrocopos leucotus* / 영명 White-backed Woodpecker / 중명 白背啄木鸟

제주도에는 개미잡이, 큰오색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3종이 분포하고, 백두산에는 개미잡이, 쇠딱따구리, 청딱따구리, 까막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큰오색딱따구리, 아물쇠딱따구리 그리고 남한에는 기록되지 않은 쇠오색딱따구리, 세가락딱따구리가 서식한다. 한편, 한국 고유아종인 크낙새(천연기념물 제197호)는 제주도에서 보고된 바 없으나, 첫 학술적 기재는 일본 대마도에서 채집한 표본이다. 크낙새는 제주도를 제외한 남북한 여러 곳에서 관찰된 바 있으나, 남한에서는 1987년 이후, 북한에서는 1990년 이후 관찰이나 채집된 기록이 없다.



큰오색딱따구리
(한라산/사진 오승목)



까막딱따구리
(강원도/사진 김인규)



쇠딱구리
(경남 남해군)

6-7. 큰부리까마귀와 까치

큰부리까마귀 *Corvus macrorhynchos* / 영명 Large-billed Crow / 중명 大嘴乌鸦

까치 *Pica pica* / 영명 Black-billed Magpie / 중명 喜鹊

제주도에는 까마귀, 큰부리까마귀, 떼까마귀, 갈까마귀 등 4종이 기록되어 있는데, 큰부리까마귀와 까마귀는 텃새이며 떼까마귀와 갈까마귀는 해안저지대의 농경지, 중산간 목장이나 초지대에 도래하는 겨울철새이다. 백두산에는 까마귀, 큰부리까마귀, 떼까마귀, 갈까마귀 그리고 잣까마귀가 분포한다. 잣까마귀는 제주도에는 분포하지 않고, 백두산을 비롯한 고산 지대에 서식하며, 남한에서는 설악산과 지리산 등 해발 1,000m이상에서 드물게 번식한다. 떼까마귀는 백두산 이북에서 번식한 이후에, 겨울에는 남한 이남으로 내려가 월동한다. 까마귀과(Corvidae)에 포함되는 어치는 한라산과 백두산에 공통종으로 분포하고, 까치는 제주도를 포함한 백두산에 이르기 흔한 텃새이지만, 제주도에 적응한 까치는 1989년 육지부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물까치는 제주도를 제외한 몽골 북부, 중국, 한국, 일본 등에 분포하고 있다.



큰부리까마귀
(제주도)



떼까마귀
(제주도)



잣까마귀
(몽골, 사진 유재평)

6-8. 멧닭과 들꿩

멧닭 *Lyrurus tetrix* / 영명 Black Grouse / 중명 黑琴鸡

들꿩 *Tetrastes bonasia* / 영명 Hazel Grouse / 중명 花尾榛鸡

한반도에 분포하는 꿩과(Phasianidae)에는 꿩, 들꿩, 메추라기, 알락산메추리, 멧닭 등 5종이 분포하며, 제주도에는 꿩과 메추라기 그리고 남한에는 꿩, 들꿩, 메추라기가 서식한다. 멧닭은 백두산을 비롯한 고산지대에서 번식하며, 개체수는 희소한 편이다. 들꿩은 백두산을 포함한 북한 지역에 선 개체수가 많은 편이지만, 남한에는 강원도와 경기도 북쪽으로 많고 그 이남에서는 아주 드문 편이다. 알락산메추리는 초지대에 서식하는 종으로 8~2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한편, 꿩의 분포권을 보면 이란, 베트남, 대만, 몽골, 중국, 한국, 일본 등이며, 잘 날지 못하는 습성 때문에 각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색깔을 띠며 30여 아종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꿩은 학자에 따라 아종 또는 별개종으로 구분할 정도로 확연히 구분된다.



들꿩
(사진 조해진)



멧닭
(수컷, 사진 한상훈)



멧닭
(암컷, 사진 한상훈)

6-9. 원앙과 호사비오리

원앙 *Aix galericulata* / 영명 Mandarin Duck / 중명 鸳鸯

호사비오리 *Mergus squamatus* / 영명 Scaly-sided Merganser / 중명 中华秋沙鸭

원앙은 국내에서는 한라산내의 계곡이 최대 월동지로 매년 1,000여 마리가 제주를 찾는다. 제주의 주요 월동지로는 도토리 열매가 풍부한 광령천, 한천, 중문천, 병문천, 강정천, 창고천, 효돈천, 신례천, 서중천 등의 계곡과 조천읍 일대의 곳자왓 지역이다. 남한에서는 경기도 광릉숲에서 번식이 확인되었지만, 제주에서는 아직까지 야생 개체군이 번식한 적은 없다. 호사비오리는 남한 내에서는 아주 희귀한 겨울철새이며, 제주에서는 해안가에 도래한 몇 회의 기록이 있을 뿐이다. 원앙과 호사비오리는 서식지를 기준으로 보면 제주도는 월동지이고, 백두산 일대는 번식지이다. 번식기에 두 종은 산간 계류에서 작은 물고기나 갑각류를 먹으며, 번식장소로는 나무 구멍을 이용한다. 암수 모두 뚜렷한 깃털색을 띠며, 수컷이 암컷보다 화려한 색깔을 띤다.



원앙
(제주도/사진 김병수)



원앙
(제주도/사진 김기삼)



호사비오리 표본
(소장 장백산자연박물관/ 사진 강경민)

6-10. 검독수리

검독수리 *Aquila chrysaetos* / 영명 Golden Eagle / 중명 金雕

백두산에 서식하는 검독수리는 5~7월경에 해발 800~1,800m 지점의 고산 산림지대에서 번식하며, 가을과 겨울에는 저지대까지 내려오며, 간혹 농촌 상공에서 활공한다. 먹잇감은 꿩, 토끼류 등 중소형의 조류와 포유류이며, 겨울에는 마을의 닭을 공격하기도 한다.

제주도에서는 1998년 10월 4일 어승생 부근에서 탈진중인 어린새 1마리가 심상호씨에 의해 처음으로 습득되었고(당시는 흰꼬리수리로 잘못 동정함), 2000년 7월 5일 백록담 남서면에서 2마리, 2001년 영실과 어리목에서 각각 1마리, 2003년 6월 6일 한라산 남벽 절벽에서 어미 2마리, 2004년 7월 삼산봉 1마리, 2007년 4월 새별오름 1마리, 2012년 7월 윗세오름 2마리가 각각 관찰되었으며, 이밖에 한라산 남벽절벽이나 영실계곡 상공에서 목격하거나 사진 촬영한 사례가 있다.

1998년 10월 검독수리가 습득되기 이전까지는 제주도에서 검독수리에 대한 관찰이나 문헌 기록은 없었다. 2001년 한라산국립공원내 습지의 동물상조사에서 첫 발표되었으며, 이후 한라산 조류조사에서 잇따라 확인되면서 검독수리의 서식을 뒷받침해주었다. 아직까지 한라산에서의 검독수리 번식지나 번식생태과정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한라산 일대에 급경사가 발달한 바위절벽을 번식지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검독수리
(한라산/사진 오희삼)



독수리
(제주도/사진 김기삼)



벌매
(제주도)

한편, 매목(Falconiformes)은 분류학상 맹금류(Raptors)에 속하는 조류로, 뱀자리수리과(Sagittaridae), 콘도르과(Catharidae), 물수리과(Pandionidae), 수리과(Accipitridae), 매과(Falconidae) 등 5과(Family)로 나누며, 물수리과를 수리과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매목은 세계적으로 300여종이 알려져 있으며 북반부, 남반구에 걸쳐 고루 분포한다. 우리나라에는 37종이 기록되어 있으며, 제주도에는 매과 5종, 수리과 22종 모두 27종이 분포하고 있다. 백두산 일대에서 보고된 맹금류는 벌매, 솔개, 참매, 새매, 새매, Accipiter virgatus (미기록종), 큰말뚝가리, 말뚝가리, 털발말뚝가리, 왕새매, 검독수리, 흰꼬리수리, 독수리, 잣빛개구리매, 알락개구리매, 개구리매, 물수리, 매, 새호리기, 비둘기조롱이,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등 22종이 보고되었다.

제주도는 지정학적 위치뿐만 아니라 맹금류의 시야가 확보되는 해안조간대, 농경지, 오름, 아고산대 등의 서식환경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동성이 강한 맹금류의 중간 기착지나 월동지로 이용되고

있다.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맹금류는 대부분 이동시기에 관찰되는 종으로, 한반도를 기준으로 번식지와 월동지를 오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 연구에서도 제주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의 도서 지역은 맹금류의 주요 이동 경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와 부속 도서는 맹금류의 중간기착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새들의 이동은 날씨와 먹이조건 등에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맹금류의 이동은 바람의 방향과 속도, 상승기류 등에 의해 출현빈도와 기착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일, 계절별 등의 조사 시기를 선택하면 맹금류의 분포와 이동경로를 보다 상세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맹금류는 생태계의 최상위층에 있어서 개체수가 적고 희귀 조류에 속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종이 CITES(절멸의 위험이 있는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에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특히 매목(Falconiformes)의 경우, 살충제의 사용 증가, 자연 서식지와 먹이 감소, 수렵이나 밀렵 등 인간의 활동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제주도에서도 주로 밀렵, 부상, 탈진, 천적, 감염성 질병 등에 의해 희생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맹금류는 먹이사슬의 상위층에 속하는 분류군으로 특정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의 지표를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한라산이나 백두산이 맹금류의 번식지 또는 중간 기착지로서 중요한 지역임을 고려하여, 인접 국가의 연구기관 간의 협력적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

6-11. 쇠재두루미와 흑두루미

쇠재두루미 *Anthropoides virgo* / 영명 Demoiselle Crane / 중명 蓑羽鹤

흑두루미 *Grus monacha* / 영명 Hooded Crane / 중명 白头鹤

두루미는 긴 목과 긴 다리를 가진 대형의 조류로, ‘뚜루루루, 뚜루루루’ 하고 울어 이름이 붙여졌다. 몸빛깔이나 크기에 따라 두루미, 검은목두루미, 재두루미, 쇠재두루미, 흑두루미, 시베리아흰두루미, 캐나다두루미 등으로 구분한다. 어린 흑두루미는 깃털색이 갈색으로 보통 3~4년이 지나야 성숙한 개체가 된다.

제주도는 두루미류의 이동경로상에 있지만, 비교적 넓은 평야가 없어서 내려앉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관찰기록으로는 재두루미, 흑두루미, 시베리아흰두루미 등이 있으며, 두루미도 문헌 기록으로 남아 있다. 백두산 두루미, 쇠재두루미, 검은목두루미 등 3종이 보고되었으며, 보통 이동 시기에 백두산을 지나며,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내려앉는다. 쇠재두루미는 남한에서는 거의 기록이 없으나, 백두산에서는 해발 600m 이하에서 비교적 드물게 확인된다. 재두루미, 흑두루미, 두루미도 이동 시기에는 백두산 이외에 남북한을 중간 기착지 또는 월동지로 이용한다.

동북아시아에서 철새들의 이동경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흑두루미, 시베리아흰두루미, 저어새와 같은 희귀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가 되고 있다. 간혹 기상조건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내려앉기도 하지만, 장거리 비행을 해야 하는 철새들은 중간기점에서 충분한 휴식과 먹이를 공급받아야 한다.

향후, 한라산에서 백두산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는 두루미류의 월동지와 중간 기착지로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두루미류 서식지 보호를 위한 남북한을 포함한 이웃 국가 간 국제협력이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지방정부, 지역주민, NGO 등 다양한 계층 간에 협력 연구와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두루미류 서식지 보존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흑두루미의 월동지인 전남 순천만 습지를 비롯하여 최근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북한 람사르 습지에 대한 물새류 공동 학술조사, 희귀 조류의 이동경로 모니터링, 생물다양성 증진 사업 등을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두루미류의 이동경로(WBSJ, 1995)





두루미
(강원도 철원/사진 유재평)



재두루미
(제주도/사진 김완병)



쇠재두루미
(몽골/사진 김인규)



흑두루미
(제주도/사진 김영호)



흑두루미
(제주도/사진 김기삼)



시베리아흰두루미
(제주도/사진 김기삼)

7. 결론

향후 백두산(장백산), 압록강, 두만강 일대의 생물다양성 조사를 위해 남북한, 중국, 러시아 등 국가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제주도 차원에서도 남북 공동으로 한라산과 백두산의 생물자원 비교조사, 람사르습지 보호 협력 공동사업 발굴, 전담조직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에서 번식하는 이동철새의 주요 번식지, 월동지 그리고 중간기착지이기 때문에 각국의 연구기관, 민간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Austin O. L. 1948. The Birds of Korea. Cambridge, Mass, U.S.A.

Brazil M. 2009. Birds of East Asia. Helm.

Ogilvie-Grant, Robert W. 1909. Mr. Ogilvie-Grant describes a new species of the Nosthatch from Corea. Bull. Brit. Orn. Club 23: 59.

Park, H. S. and B. O. Won. 1980. A Survey of birds in Jeju (Quelpart) Island. Yamashina Inst. Bull. 12(1): 14-39.

강영선. 1962. 한국동물도감(조류). 문교부.

강창완, 강희만, 김병수, 김은미, 송인혁, 지남준. 2017. 제주야생동물도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

강창완, 강희만, 김완병, 김은미, 박찬열, 지남준. 2009. 제주조류도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국립산림과학원난대림연구소·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高玮, 盛连喜. 2006. 백두산 동물도감(한국번역판). 일진사.

具诚, 高玮, 王魁颐. 1997. 吉林省生物种类与分布. 东北师范大学出版社.

吉林省长白山自然保护区管理局科研所. 1983. 长白山自然保护区科管论文集. 边人民出版社.

김완병, 김기삼, 조영균. 2020. 제주 바다를 누비는 매.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김완병, 김병수, 김태욱. 2013. 2012한라산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조류). pp. 231-263.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김완병. 2018. 새들의 천국,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김화정, 원병오. 2012. 한반도의 조류. 아카데미서적.

朴龙国, 王绍先, 朴正吉. 2013. 长白山兽类. 吉林出版集团. 吉林科学技术出版社.

박종길. 2014. 야생조류 필드 가이드. 자연과 생태.

박행신, 원병오. 1985. 한라산 산림조류의 군집구조 조사 분석 연구, 한라산천연보호지구학술조사 보고서 pp. 481-522, 제주도.

박행신. 1998. 제주의 새. 제주대학교 출판부.

백운기, 이한수, 한성우. 2003. 한라산국립공원 생태계 연구 - 제주도 조류상. 국립중앙관 학술총서: 167-186.

森為三(1927). 濟州夏季鳥類觀察記. 鳥 6(26):45-47.

오장근. 2002. 한라산 조류의 분포 특성. 한라산연구보고서 115-135.

오홍식, 김병수, 김완병. 2002. 한라산 조류군집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조류학회지 9(2): 85-104.

王绍先. 2007. 长白山保护开发区生物资源. 辽宁科学技术出版社.

원병오. 1968. 한라산 및 홍도. pp. 223-298. 문공부.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문교부.

元洪九. 1931. 濟州島に於ける ヤイロチヲウ習性の就て. 動雜 43: 666-668.

원홍구. 1964. 조선조류지(2). 과학원출판사.

传桐生, 高崑. 1965. 长白山鸟类区系的.類型其东分布. 吉林师大学报기. 自然科学版 2期.

传桐生, 高玮, 宋榆钧. 1984. 长白山鸟类. 东北师范大学出版社.

传桐生, 高玮, 宋榆钧. 1984. 长白山鸟类. 东北师范大学出版社.

정세호, 오장근, 김완병. 2006. 한라산총서Ⅹ-한라산의 동물. 제주도. 한라생태 문화연구소.

赵正阶, 何敬杰, 张兴录, 场伯然, 朴龙国, 孟沙, 朴正1吉. 1985. 长白山鸟类志. 吉林科学技术出版社.

赵正阶, 何敬杰, 张兴录, 场伯然, 朴正1吉. 1983. 长白山地区的鸟类研究. 长白山自然保护区科管论文集: 181-198. 吉林省长白山自然保护区管理局科研所.边人民出版社.

赵正阶. 1984. 吉林省延候鸟考察报告. 边人民出版社.

陈霞, 王绍先, 王振国. 2012. 长白山保护区开发区 生物多样性保护与可持续发展. 吉林出版集团.吉林科学技术出版社.

채희영, 박종길, 최창용, 빙기창. 2009. 한국의 맹금류. 국립공원관리공단.

黒田長礼, 森為三. 1918. 濟州島 採集の主なる鳥類に就て. 鳥 2(7): 73-88.

백두산호랑이 한라산에 오다

제145회 특별전
백두산호랑이 한라산에 오다

145th Special Exhibition
Siberian Tiger Comes to the Mt. Hallasan

총괄	노정래
기획	부용식 김완병
후원	서울대공원 제주대학교박물관
협조	문창민(상량문대들보) 제주민속촌박물관 문뜰갤러리 자연제주
전시진행	김완병 고창식 김범수 백지현 황이새
학예지원	김태희 김효숙
원고편집	김완병
번역	반영관
사진	김기삼 김성훈 김완병 김태희 박용국 오승묵 이창훈 임재영 조영균
영상	박용국
행정지원	김영애 고문경 우치관 이홍림 장현식 홍덕주 홍성혁
작가	호랑이생태 조기섭 고복만 한지공예 부선희 고정범 부진희 일러스트 강주희 김남영 김지훈 표제 김효은 캘리그래퍼

발행일 2020. 12. 19

발행인 노정래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 - Governing Province
6327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
Tel. 064-710-7704
<https://www.jeju.go.kr/museum/index.htm>

도록디자인 사가각하우스

전시연출 예원 CnC
유광민

ISBN 979-11-968965-2-2 93060

발간등록번호 79-6500450-000038-01

Copyright © 2020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All right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과 사진 소장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비정(非情)의 눈
참여작가: 조기섭, 고복만
7.0x3.6x0.9m
스티로폼

두려움을 느낀 늑대가 바라본 호랑이는 눈 내린 대지 위에 위험조차 느껴지지 않는 표정으로 배를 깔고 앉아 있다.
차가운 공기만이 흐르는 이 순간, 눈이 가지고 있는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